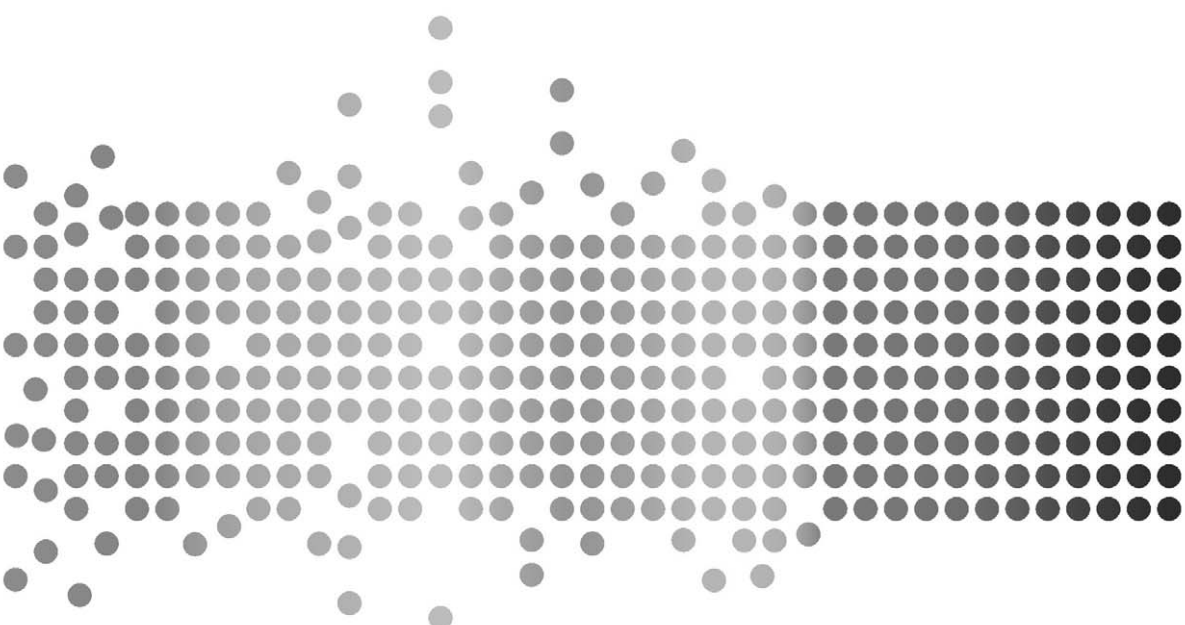


저소득층의 자산 실태 분석

Analysis of the Net Worth of the Poor in Korea

남상호



한 국 보 건 사 회 연 구 원
기초보장 · 자활정책평가센터

연구보고서 2009-26-5

저소득층의 자산실태분석

발행일	2009년 12월
저자	남상호
발행인	김용하
발행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소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68(우: 122-705)
전화	대표전화: 02) 380-8000
홈페이지	http://www.kihasa.re.kr
등록	1994년 7월 1일 (제8-142호)
인쇄처	예원기획
가격	5,000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

ISBN 978-89-8187-605-0 93330

머리말

지난 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국제금융 위기가 급속하게 진전됨에 따라 소득 및 자산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데, 이는 다시 심각한 사회문제로 연결될 수 있다. 외환위기 이후 빈곤층, 근로빈곤층 (working poor), 그리고 차상위계층 (near poor)의 자산실태를 동태적으로 파악하고, 정책수립을 위하여 이에 관한 기초연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기초분석 결과가 충분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현재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 판별을 위해 이용되는 소득인정액 기준은 가구의 소득뿐 아니라 자산항목도 포함되기 때문에 소득 기준의 빈곤계층에 관한 연구뿐만 아니라 자산 기준의 빈곤계층에 대한 연구를 통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기존의 자산관련 연구 중에서 단순히 총자산을 분석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총부채가 고려되지 않고 있어서 경제위기 등의 상황에서 합당한 분석척도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여기서는 그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순자산 개념을 기반으로 저소득층의 자산보유 실태를 분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기초보장제도 도입의 사회적 불평등 완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저소득층의 자산보유 현황을 분석한 다음, 자산 및 소득 불평등 완화를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최종적인 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비수급 빈곤층과 잠재적 빈곤층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이 가능하게 되어야 한다. 그런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는 대체로 엄격한 부양의무자 기준과 과도한 재산의 소득환산을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양의무자 기준과 재산기준에 대한 지속적인 재검토를 통하여 절대빈곤 상태에 있는 비수급 빈곤층을 제도 안으로 포함시키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다.

본 연구는 기초보장연구실 남상호 박사의 책임 하에 수행되었다. 남상호 박사는 본 연구에 대해 귀중한 조언을 아끼지 않은 관동대학교 국제경영학과의 김상호 교수님, 원내의 김태완 연구위원과 최현수 연구위원, 그리고 익명의 두 심사자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고 있다. 아울러 각종 통계자료 분석과 원고정리에 많은 도움을 준 기초보장연구실의 김문길 선임연구원, 김경현 연구원, 그리고 이서현 연구원에게 각별한 감사를 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결과는 우리 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니라 연구진의 개별적 의견임을 밝혀둔다.

2009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김 용 하

Abstract	1
요 약	3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1
제2절 선행연구의 검토	12
제3절 연구의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16
제2장 저소득층의 자산보유 실태	19
제1절 분석자료의 특징	19
제2절 가구자산의 특징	22
제3절 빈곤가구의 정의	23
제4절 자산빈곤가구의 실태	25
제3장 저소득층의 자산 불평등 요인 분해	53
제1절 분석기법	53
제2절 저소득층의 순자산 불평등 요인 분해	54
제3절 저소득층의 지역별 불평등 요인 분해	55
제4절 저소득층의 교육 수준별 불평등 요인분해	61
제4장 저소득층의 자산 보유결정요인	65
제1절 저소득층의 자산 보유 결정모형	65
제2절 저소득층의 자산 보유 결정요인	66
제5장 요약 및 시사점	73
참고문헌	79
부록	85
색인	105

표 목차

〈표 1〉 복지패널 2차 자료의 결측치 처리방법	20
〈표 2〉 소득의 정의	21
〈표 3〉 가구주 연령대별 순자산의 규모	22
〈표 4〉 절대빈곤 계층의 구분	23
〈표 5〉 소득빈곤 가구 점유율	24
〈표 6〉 자산빈곤 가구 점유율	25
〈표 7〉 가구주 연령별 자산빈곤	26
〈표 8〉 가구주 연령별 자산빈곤 현황	27
〈표 9〉 가구주 교육수준별 자산빈곤	28
〈표 10〉 가구주 교육수준별 자산빈곤 현황	29
〈표 11〉 지역별 자산빈곤	29
〈표 12〉 지역별 자산빈곤 현황	30
〈표 13〉 지역권별 자산빈곤	31
〈표 14〉 지역권별 자산빈곤 현황	31
〈표 15〉 가구원수별 자산빈곤	32
〈표 16〉 가구원수별 자산빈곤 현황	33
〈표 17〉 가구주 경제활동 상태별 자산빈곤	34
〈표 18〉 가구주 경제활동 상태별 자산빈곤 현황	35
〈표 19〉 가구주 직종별 자산빈곤	36
〈표 20〉 가구주 직종별 자산빈곤 현황	36
〈표 21〉 자산·소득빈곤에 따른 자산 및 소득 현황	38
〈표 22〉 자산·소득빈곤에 따른 자산 및 소득 현황 (절대빈곤 기준) ..	40
〈표 23〉 자산·소득빈곤에 따른 자산 및 소득 현황 (절대빈곤 환산액 기준) ..	41

〈표 24〉 자산·소득빈곤에 따른 자산 및 소득 현황 (상대빈곤 기준) ..	43
〈표 25〉 자산빈곤 및 수급여부에 따른 자산 및 소득 현황	47
〈표 26〉 자산·소득빈곤에 따른 소득인정액 산출 항목 현황	50
〈표 27〉 절대빈곤 계층의 불평등 요인 분해	55
〈표 28〉 전체 가구의 지역별 불평등 요인 분해	56
〈표 29〉 전체 가구의 지역권별 불평등 요인 분해	56
〈표 30〉 각 지역의 순자산 구간별 비율	57
〈표 31〉 저소득층의 지역별 불평등 요인 분해	59
〈표 32〉 저소득층의 지역권별 불평등 요인 분해	60
〈표 33〉 전체 가구의 교육수준별 불평등 요인 분해	61
〈표 34〉 저소득층의 교육수준별 불평등 요인 분해	62
〈표 35〉 가구 계층별 기초통계량	66
〈표 36〉 가구 계층별 순자산 결정요인	69
〈표 A 1〉 가구주 연령별 자산빈곤	87
〈표 A 2〉 가구주 연령별 자산빈곤 현황	87
〈표 A 3〉 가구주 교육수준별 자산빈곤	88
〈표 A 4〉 가구주 교육수준별 자산빈곤 현황	88
〈표 A 5〉 지역별 자산빈곤	89
〈표 A 6〉 지역별 자산빈곤 현황	89
〈표 A 7〉 지역권별 자산빈곤	90
〈표 A 8〉 지역권별 자산빈곤 현황	90
〈표 A 9〉 가구원수별 자산빈곤	91
〈표 A10〉 가구원수별 자산빈곤 현황	91
〈표 A11〉 가구주 경제활동 상태별 자산빈곤	92

〈표 A12〉 가구주 경제활동 상태별 자산빈곤 현황	92
〈표 A13〉 가구주 직종별 자산빈곤	93
〈표 A14〉 가구주 직종별 자산빈곤 현황	93
〈표 A15〉 자산·소득빈곤에 따른 자산 및 소득 현황	94
〈표 A16〉 자산·소득빈곤에 따른 자산 및 소득 현황 (절대빈곤 기준) ...	95
〈표 A17〉 자산·소득빈곤에 따른 자산 및 소득 현황 (절대빈곤 환산액 기준)	96
〈표 A18〉 자산·소득빈곤에 따른 자산 및 소득 현황 (상대빈곤 기준) ..	97
〈표 A19〉 자산빈곤 및 수급여부에 따른 자산 및 소득 현황	98
〈표 A20〉 자산·소득빈곤에 따른 소득인정액 산출 항목 현황	99
〈표 A21〉 기초통계량의 비교 (가계자산조사, 복지패널)	100

그림 목차

[그림 1] 총자산 kernel 밀도 함수	45
[그림 2] 순자산 kernel 밀도 함수	46
[그림 3] 경상소득 kernel 밀도 함수	46
[그림 4] 지역별 순자산의 kernel 밀도 함수	58
[그림 A1] box plot (순자산 및 소득)	101
[그림 A2] Pen's parade (순자산 및 소득)	101
[그림 A3] adaptive kernel density (순자산 및 총소득) ..	102
[그림 A4] Lorenz 곡선 (순자산)	102
[그림 A5] Lorenz 곡선 (총소득)	103

Abstract

Household assets can play a very special role in consumption smoothing especially in times of such economic downturn as the recent international financial crisis. Information on both income and wealth are required in evaluating income equivalent of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Protection, which is the basis for the classification of Basic Livelihood Protection benefit recipients. Even though research on income inequality is quite popular in Korea, evidence is insufficient with regard to the nature of the wealth distribution of the poor.

In this study, we focused on the net worth, which is defined as the difference between asset and debt. We also proposed some policy recommendations for reducing inequalities in income. The concepts of both absolute and relative asset poor are used. In this study, the absolute asset poor is defined as the household that continues to have minimum cost of living for less than 6 months. On the contrary, relative asset poverty is defined as the household that has less than 40% of the median net asset. According to this criteria, the absolute asset poverty ratio is 13.3%, the relative asset poverty ratio 29.3%, the absolute income poverty ratio 10.2%, and the relative income poverty ratio 14.7%.

Some of the finding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asset poverty ratio increases as the age of household head increases,

and decreases as the education level of the household head increases.

Second, the Seoul Metropolitan area showed the lowest asset poverty ratio of 9.9%, where Cholla-Cheju showed the highest ratio at 19.3%.

Third, single families were the group that showed the highest poverty ratio, and their poverty ratio decreased as the number of household members increased.

Fourth, age, holdings of financial assets, housing tenure, urban residence are found to be major determinants of net-asset holdings.

Some of the policy implication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Asset-poor households are not able to accumulate net assets because they do not have enough income to cover basic consumption needs.

Therefore, in order to make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Protection System more effective for the poor, creation of decent jobs and relaxation of the stringent family support criteria might be essential steps to take.

요약

1. 서론

- 국제금융 위기의 진전으로 인한 소득 및 자산불평등의 심화로 인해 빈곤계층의 자산실태를 파악하고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연구가 필요함
 - 기존의 빈곤에 관한 연구는 소득빈곤에 관한 연구들이며 자산빈곤에 관한 기초분석 결과는 충분하지 않음
- 자산은 소비평활화 기능이 있으므로 가계가 불완전한 자본시장이나 차입제약에 직면해 있을 때 큰 중요성을 지님
 -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 판별을 위해 이용되는 소득인정액 기준은 가구의 소득과 자산 정보를 모두 필요로 하므로, 소득기준의 빈곤계층에 관한 연구뿐만 아니라 자산 기준의 빈곤계층에 대한 연구의 보완이 필요함
 - 빈곤 가구의 순자산을 파악함으로써 가구 재정상태를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 본 연구에서는 부채를 고려할 수 있는 순자산에 중점을 두어 빈곤계층의 자산보유 실태를 분석하고 불평등 완화를 위한 정책을 제시함
- 선행연구에 따르면 자산은 소득에 비해 불평등도가 높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발견됨

2. 저소득층의 자산보유 실태

-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2차 자료를 중심으로 저소득가구의 소득과 자산보유 실태를 파악하며, 3차 자료의 결과도 비교를 위하여 부록에 제시함
- 소득빈곤과는 달리 자산빈곤을 정의하는 방법은 명확한 기준이 없으므로 소득빈곤의 개념과 유사하게 절대빈곤과 상대빈곤 기준을 정의함
 - “일정기간동안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자산유형(wealth-type)을 가지지 못한 가구” 라는 Haveman and Wolff (2001)의 개념을 기본으로 가구의 자산이 6개월간 최저생계비 보다 적은 경우 절대자산빈곤가구로 봄
 - 상대자산빈곤 가구는 순자산 중위값의 40%, 50%, 60%에 미달하는 가구로 각각 정의함
- 복지패널 2차 자료를 분석한 결과로 구분한 절대자산빈곤 가구는 전체 가구의 13.3%이며, 순자산 중위수의 40%로 정의한 상대자산빈곤 가구는 29.3%임
 - 유사한 개념의 절대소득빈곤율이 10.2%, 상대소득빈곤율이 14.7%인 것과 비교하면 자산빈곤가구가 소득빈곤가구 보다 더 빈곤율이 높음
- 가구주의 인구학적 특성 및 거주지역 등의 구분에 따른 자산빈곤 현황을 비교할 수 있음
 - 70대 이상 가구의 빈곤층에 속하는 비율이 다른 연령에 비해 높으며, 70대 이후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빈곤율이 높아짐
 - 가구주 교육수준이 ‘무학’인 경우 빈곤율이 27%로 가장 높고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각 그룹에서 빈곤에 포함되는 비율이 낮아짐
 - ‘서울’지역 빈곤율이 9.9%로 가장 낮으며 ‘전라·제주’지역이 19.3%로 가장 높음
 - 지역별로 구분한 경우와 동일하게 ‘서울’지역 빈곤율이 가장 낮으며, ‘광역시’의 빈곤율이 15.8%로 가장 높음

- 1인가구의 빈곤율이 26.1%로 가장 높고, 가구원수가 많은 경우 빈곤율이 상대적으로 낮음
- 가구주가 ‘일용직’인 경우의 빈곤율이 30.5%로 가장 높게 나타나며, ‘고용주’일 경우 3.6%로 빈곤율이 가장 낮음
- 가구주가 ‘단순노무직’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의 빈곤율이 21.7%로 가장 높으며, ‘전문직’인 경우 2.8%로 가장 낮음
- 전체 가구를 자산빈곤과 소득빈곤의 기준을 적용하여 2차원으로 구분하면 소득기준으로는 비빈곤가구이면서 자산기준으로는 빈곤에 속하는 가구의 순자산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이들 가구는 소득빈곤이며 자산빈곤인 가구에 비해 소득과 총자산은 크나 부채가 커서 순자산이 오히려 작게 나타남
-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기준과 소득인정액 기준, 자산빈곤의 기준으로 가구를 구분하면 비수급·수급대상 자산빈곤가구의 순자산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대부분의 경우 해당가구가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수급에서 배제된 것으로 볼 수 있음

3. 저소득층의 자산 불평등 요인 분해

- 저소득가구에 대한 순자산 불평등의 요인 분해를 통해 계층별 불평등도 및 지역·교육별로 세분화하여 불평등도를 분석해 본 결과,
 - 소득계층별 불평등도는 절대빈곤계층이 가장 높고, 일반계층으로 갈수록 불평등도는 낮아짐
 - － 각 그룹내 불평등도가 전체 불평등도에 기여하는 비율은 94.4%로, 그룹간 불평등도의 상대 기여도 5.6%에 비해 매우 높음
 - 지역별 불평등도를 비교하면 ‘시’가 1.672로 가장 높고, ‘군’지역이 1.280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 상대기여도는 ‘서울’지역에서 42.5%, ‘시’에서 39.1%순으로 높게 나타남
- 각 지역권별로 불평등도를 비교하면 ‘충북’지역이 가장 높고, ‘경기’지역이 가장 낮음
 - 상대기여도는 ‘서울’이 42.5%로 가장 높고, ‘경북’지역이 3.9%로 가장 낮음
- 대부분의 지역에서 저소득층의 불평등도가 일반계층보다 높음
 - 저소득층의 지역별 불평등을 분해하면 ‘서울’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의 불평등도가 가장 높으며, 이는 저소득층 내에서 자산 격차가 매우 큼을 의미함
 - ‘경남’, ‘경북’, ‘전라·제주’지역은 저소득층과 일반계층 간의 불평등도는 큰 차이가 없으며, ‘충남’, ‘충북’지역은 일반계층의 불평등도가 더 큼
- 가구주의 교육수준에 따른 불평등도는 ‘중졸’, ‘고졸’, ‘대학원졸’순으로 높게 나타남
 - 상대기여도를 보면 ‘대졸’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고졸’, ‘중졸’의 순임

4. 저소득층의 자산 보유 결정요인

- 순자산보유액을 종속변수로, 독립변수로 가구주 연령, 금융자산보유 여부, 경상소득, 가구원수, 전문직 여부, 자영업 여부, 도시거주 여부, 주택보유 여부 등을 이용하여 저소득층의 자산보유 결정요인을 중위회귀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가구주연령이 올라갈수록 순자산은 체감적으로 증가함
 - 자산빈곤가구의 경우 가구주 연령변수가 통계적 유의성을 갖지 못하며 이는 자산빈곤이 전 연령대에 걸쳐 나타남을 의미함
- 금융자산을 보유한 가구는 그렇지 않은 가구보다 순자산이 많음

- 경상소득은 순자산 규모를 결정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가구원수가 증가할수록 순자산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남
 - － 종속변수가 가구원수로 균등화된 순자산임을 감안할 때 전체 표본에서는 순자산이 가구원수의 제곱근보다 적게 증가하는 것을 의미함
 - － 자산빈곤가구와 비자산빈곤가구로 각각 구분한 경우에는 가구원수의 변화가 순자산 규모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에 이는 가구원수가 순자산 축적이 가구원수의 제곱근에 비례함을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됨
 - － 균등화 시키지 않은 순자산을 이용하여 동일한 분석을 수행하면 자산빈곤가구의 경우에 있어서만 가구원수 증가가 소득 창출을 통하여 자산 축적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 가구가 전문직 및 자영업에 종사할수록 순자산은 증가함
 - － 자산빈곤가구의 경우 이들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가 희소하여 통계적 유의성을 갖지 못함
- 주택을 보유한 가구는 그렇지 않은 가구에 비해 순자산을 더 많이 보유하는 것으로 나타남
- 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비도시거주자에 비해 순자산을 더 많이 보유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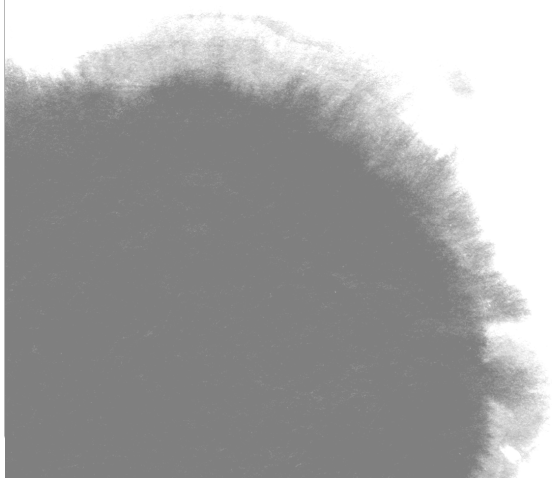
5. 요약 및 시사점

- 자산빈곤가구는 일반가구에 비해 소득과 순자산이 모두 낮은 것으로 나타남
 - 그 이유는 이들 가구는 충분한 소득을 얻지 못하고 있으며 소득의 대부분을 가계 지출에 충당하기 때문에 소득이 자산형성으로 이어지지 못하기 때문임

- 자산빈곤가구가 일반가구와는 다른 몇 가지 특성이 존재하므로 이를 통한 정책적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자산빈곤가구의 특정 연령계층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빈곤완화정책은 전체적인 정책의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음
 - － 아동발달계좌 등 보편적 형태의 제도설계를 통해 공평하게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함
 - 빈곤가구의 자산축적을 위해 고용창출이 중요하므로, 이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노력이 필요함
 - 도시에 거주하는 자산빈곤가구의 주택마련을 위한 현실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며 임대주택 거주자의 경우 임대료 부담을 줄여나갈 수 있는 대책을 통해 점진적인 자산형성이 가능하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음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강력한 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제도의 재검토를 통해 비수급 자산빈곤층을 제도 안으로 포함시키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

01

서론



제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지난 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국제금융 위기가 급속하게 진전됨에 따라 소득 및 자산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데, 이는 다시 심각한 사회문제로 연결될 수 있다. 외환위기 이후 빈곤층, 근로빈곤층 (working poor), 그리고 차상위계층 (near poor)의 자산실태를 동태적으로 파악하고,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연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기초분석 결과가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현재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 판별을 위해 이용되는 소득인정액 기준은 가구의 소득뿐 아니라 자산항목도 포함되기 때문에 소득 기준의 빈곤계층에 관한 연구 뿐만 아니라 자산 기준의 빈곤계층에 대한 연구를 통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자산은 가구 재정 안정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고 더 많은 자산을 창출해 낼 수 있다. 더욱이 소득과 자산의 상관관계는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오직 소득만을 대상으로 한 빈곤의 논의는 실질적으로 가구가 직면한 재정 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시하기엔 부족한 면이 있다(Keister and Moller, 2000).

기존의 자산관련 연구 중에서 단순히 총자산을 분석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총부채가 고려되지 않고 있어서 경제위기 등의 상황에서 합당한 분석적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순자산)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기초보장제도 도입의 사회적 불평

등 완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저소득층의 자산보유 현황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저소득층의 자산보유 실태 분석을 통하여 불평등 완화를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제2절 선행연구의 검토

여기서는 자산분포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에 대해 살펴본다. 본 연구에서는 자산이란 인적자본에 관한 내용을 제외하고 주로 실물 및 금융자산에 국한된다. 만일 전반적인 경제적 후생수준(overall economic well-being)에 관심을 갖는다면 인적 및 비인적 자본을 총괄하는 총자산을 분석하면 될 것이지만 총자산은 우리의 관심대상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우리가 자산 보유에 관심을 갖는 이유 중 한 가지는 이들 자산이 소비평활화(consumption smoothing)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은 인적자본의 경우와는 달리 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한 것들이다. 가령 출산을 앞두고 있어서 조만간 소비지출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거나, 은퇴시점이 가까워져서 조만간 소득의 감소가 예상된다거나, 또는 예상하지 못한 외적인 충격으로 인하여 소비 또는 지출 수준이 영향을 받을 경우 자산은 소비수준을 평활화 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Caner and Wolff, 2004). 이와 같이 자산의 소비평활화 기능(또는 역할)은 개인 또는 가계가 불완전한 자본시장에 직면해 있다거나 또는 차입제약에 직면하였을 때 더 큰 중요성을 지닌다.

Davies and Shorrocks(1999)는 1980년대 중반 몇몇 국가들의 가계자산 집중도를 정리하고 있는데, 자산불평등이 낮은 국가로는 호주, 한국, 아일랜드, 일본, 스웨덴 등이다. 이들의 지니계수는 0.5~0.6 수준에 머무르고 있고 상위 1% 가계의 자산점유율은 대략 20% 정도이다. 그 다음으로 캐나다, 덴마크, 프랑스, 독일 등은 상위 1%가 자산의 약 26% 정도를 가지고

1) 순자산은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하여 얻어진다.

있다. 한편 미국의 지니계수는 0.8 수준으로 자산불평등이 가장 높은 나라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상위 1%의 자산점유율은 30%를 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Davies and Shorrocks(1999)는 기존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얻어진 ‘자산분포의 정형화된 사실(stylized facts of wealth distribution)’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다. 첫째, 소비지출, 총소득, 근로소득 분포와 비교해 볼 때 자산분포는 이들보다 더욱 불평등하게 분포되어 있다. 선진국의 소득 지니계수는 0.3~0.4 이지만, 자산 지니계수는 0.5~0.9 까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상위 1%의 가계 또는 개인의 소득 점유율은 10%를 넘지 않지만 상위 1%의 자산 점유율은 15~35%에 이르고 있다. 둘째, 금융자산은 비금융자산보다 더욱 불평등하게 분포되어 있다. 셋째, 상속받은 자산의 경우 다른 자산보다 더욱 더 불평등하게 분포되어 있다. 넷째, 거의 모든 연령층에서 매우 낮은 수준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가계나 개인이 존재한다. 다섯째, 20세기에 있어서 자산분포의 불평등은 대체로 완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상과 같은 자산분포의 정형화된 사실을 모두 잘 설명할 수 있는 이론 모형은 아직 개발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자산의 변화가 총소득, 자산수익률, 소비, 자본이전과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관계식(accounting identity)은 자산분포의 불평등의 결정요인이나 불평등 추이 분석에 있어서 아주 유용한 분석도구가 된다.

Caner and Wolff(2004)는 1984~1999년 기간 동안 미국의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사용가능한 저축이 부족한 가구의 구성비와 특징을 살펴보고 있다. 이들은 Haveman and Wolff(2001)의 자산빈곤 개념²⁾을 사용하여 저소득층의 자산빈곤의 결정요인과 추이를 분석하였다. 이들의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식적인 소득 개념에 기초한 빈곤율의 급격한 하락에도 불구하고 자산빈곤율은 1984~

2) Haveman and Wolff(2001)는 자산빈곤가구란 ‘일정기간동안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자산유형(wealth-type)을 가지지 못한 가구’로 정의하였다.

1999년 기간 동안 거의 변화가 없었다. 둘째, 이 기간 동안 경제성장이 지속되었고 또 주식시장이 활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산빈곤의 심도(severity)는 오히려 증가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한 최초의 자산분포 연구로는 Leipzig, *et al.*(1992)을 들 수 있다. 이들은 1988년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4,291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과 자산을 조사한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1988년 총자산 Gini 계수가 0.58임을 밝히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자산상위 1%, 5%, 10%의 점유율은 각각 19%, 37%, 그리고 48%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산집중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토지보유인데, 1988년의 경우 상위 25%의 토지보유자들이 총 토지자산 가액의 90%를 소유하고 있었다고 한다(Leipzig, *et al.*, 1992, p. 46).

이정우·이성림(2001, 2001a, 2001b)은 대우패널자료를 이용하여 가구자산의 분배를 추계하였는데, 외환위기 이전부터 순자산의 불평등이 증가하고 있었으며, 외환위기 이후의 기간에서는 최하위층의 부채가 급증함을 발견하였다. 그 반면 최상위층에서는 순자산이 상당히 증가하였는데 그 대부분은 부동산자산이었음을 발견하였다.

김진영(2002)에서는 1993~1998년간 대우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가구의 자산구성 패턴의 변화를 살펴보고 있다. 우리나라 가구 자산구성의 일반적인 특징을 살펴본 결과 자산구성이 가계의 위험기피적인 성향을 크게 반영하고 있는 점 외에도 부동산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보유 불평등 정도는 부동산자산만을 고려하였을 경우와 금융자산만을 고려하였을 경우 모두 소득불평등보다 더 높게 나타남을 발견하였다.

남상호(2007)는 1999~2004년 노동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가구의 자산 보유현황과 분배구조를 분석하였다. 자산구성의 특징을 살펴보면 부동산의 비중이 대단히 높고, 순자산 분포는 소득에 비하여 집중도가 매우 크게 나타나며, 자산보유 불평등이 심화되는 외에도 자산보유 양극화도 꾸준히 진행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빈곤계층 귀속요인을 살펴본 결과

가구의 소득과 취업자 수가 많을수록, 주택을 보유한 가구일수록 빈곤계층에 속할 확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경준(2007)의 소득불평등도에 대한 개념인식 설문조사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상대적 소득불평등도의 기본가정에 대하여 대부분 동의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 시점에서 상대적 소득불평등도의 증가 보다는 절대적 소득불평등도(즉, 절대적 소득격차)의 변화에 대하여 좀 더 민감하게 변화한다고 한다. 소득불평등도의 변화는 그 변화의 양상이 절대적인가 상대적인가 여부에 따라 성장과 빈곤변화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지적하고 국가 발전을 위한 전략을 설정함에 있어 빈곤감소적 성장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소득분배정책을 수행해 나가야 함을 권고하고 있다.

남상호(2008)에서는 노동연구원의 노동패널(KLIPS) 2~9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가구의 자산분포 불평등을 분석하였다. 2006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순자산과 총소득의 지니계수는 0.731과 0.438로 나타났으며, 총소득과 순자산간의 상관계수는 미국(0.49)보다는 다소 낮은 수준인 0.313이었다. 또한 2006년을 기준으로 상위 1%계층이 순자산의 16.7%를 가지고 있으며, 상위 5%는 39.8%, 그리고 상위 10%는 절반을 넘는 54.3%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순자산이 소득보다 집중경향이 현저하게 높을 뿐만 아니라 최근 7년 동안 자산의 부유층 집중현상이 상당히 급속하게 진행되어 왔으며, 최근의 가구 순자산 불평등도를 구성요소별로 분해해 본 결과 부동산자산의 불평등기여도가 가장 높았음을 지적하고 있다.

남상호·권순현(2008)에서는 국민노후보장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중·고령자가구의 자산분포 현황 및 구성 분석, 자산불평등 요인분해, 자산빈곤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소득보다 자산의 집중도가 높고, 가구주 연령이 높을수록 자산빈곤층에 속하는 비율이 높아짐을 발견하였다. 또 로짓모형을 이용하여 자산빈곤 결정요인을 살펴본 결과, 여성, 월세, 5세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는 자산빈곤층에 속할 확률이 높고, 교육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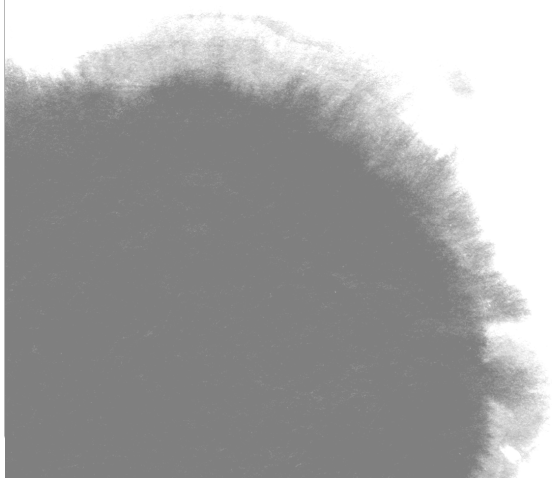
준, 소득수준, 건강수준이 높거나 자가를 보유한 가구는 자산빈곤층에 속할 확률이 낮음을 발견하였다.

제3절 연구의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여기서는 최근의 글로벌 금융위기 등 경제여건의 변화를 반영하여 소득 계층별 자산보유 실태에 분석의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외환위기 이후 빈곤층, 그리고 차상위계층 (near poor)의 규모와 실태를 동태적으로 파악가능하며, 이를 통하여 ‘최저생활보장 및 일을 통한 탈빈곤’이라는 세부 정책목표를 전략적으로 수립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저소득층의 자산축적을 통한 탈빈곤 복지정책의 정착을 통하여 향후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포함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02

저소득층의 자산 보유 실태



제2장 저소득층의 자산보유 실태

제1절 분석자료의 특징

주요 분석에 이용한 자료는 한국복지패널(Korean Welfare Panel Study, 이하 Koweps)조사 2차 자료이며, 조사 및 구축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에서 공동으로 시행하고 있다.

복지패널 2차 자료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국 6,580가구, 13,478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국내 가구단위 패널자료 중 가장 표본규모가 큰 조사이다. 표본이 많기 때문에 통계학적으로는 표본오차가 적어져 보다 신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다양한 분석이 가능하다. 둘째, 2차 표본 중 43%가 중위소득 60%미만의 저소득층이므로, 저소득층에 대한 다양한 분석을 하는데 적합하다는 장점이 있다. 셋째, 전국을 대표하는 패널조사라는 점이다. 국내의 다른 대표적인 조사들이 농·어가를 제외하거나 도시지역으로 한정함으로 인해 대표성에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으나, 한국복지패널은 제주도 와 농·어가를 포함하고 있어 대표성이 높은 자료라 할 수 있다.

설문대상의 시점은 유량(flow)의 경우 2006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로, 저량(stock)은 2006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복지패널조사의 가구 원자료를 이용하였으며, 분석에 필요한 순자산과 경상소득은 자료내의 값으로 직접 계산 하였다. 먼저 순자산은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하여 계산하였다. 총자산을 구성하는 항목은 부동산자산, 금융자산, 기타자산이다. 부동산자산은 거주주택의 가격과 소유

부동산, 점유부동산을 합하여 계산하였다. 거주주택의 경우 자기는 주택의 가격, 전세는 전세금, 보증부월세는 보증금이다. 금융자산은 예금, 적금, 주식·채권, 타기전 계돈 등이 포함되며, 기타자산은 농기계, 농축산물, 자동차, 기타재산이 포함된다. 부채는 금융기관대출, 일반사채, 카드 빚, 전세보증금, 외상과 미리탄 계돈을 합하여 계산하였다.

순자산관련항목의 경우 전항목이 결측이면 missing으로 처리하였으며, 일부만 결측인 경우는 그 결측치를 영(0)으로 처리하였다. 자료 내에서 순자산 관련항목이 모두 결측인 경우는 존재하지 않았다.

경상소득의 구성항목 또한 전 항목을 결측으로 응답한 경우는 존재하지 않았으나 근로소득의 결측이 2,839가구, 사업소득 결측이 3,969가구였으며 이들 결측치의 경우 자산소득의 유무와 근로 및 사업소득자 유무에 따라 missing 혹은 영(0)으로 처리하였다.

자세한 자료 처리 기준은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표 1〉 복지패널 2차 자료의 결측치 처리방법

결측치	자산소득 존재여부		가구 내 관련 소득자 존재유무		결측치 처리방법
근로소득 2,839 case	있음	756 case	-		0
	없음	2,083 case	없음	2,079 case	0
			있음	4 case	missing
사업소득 3,936 case	있음	1,061 case	-		0
	없음	2,875 case	없음	2,868 case	0
			있음	7 case	missing

주: 1) 근로소득 = 상용근로자의 연간총급여액, 임시·일용근로자의 연간총급여액

2) 사업소득 = 고용주 및 자영자의 연간순소득 + 농림축산업순소득 + 어업순소득 + 부업소득

근로소득 관련항목이 전부 결측인 경우는 2,839 가구이며 이들 가구 중 자산소득이 있는 가구와 자산소득은 없으나 근로소득자가 있는 총 2,835 가구는 근로소득이 영(0)으로, 나머지 4 가구는 missing으로 처리하

였다. 사업소득 관련항목을 전부 결측인 3,936 가구로 근로소득의 처리기준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였으며 전체 중 3,929 가구는 사업소득을 영(0)으로, 7 가구는 missing으로 처리하였다.

주요 분석 대상이 되는 소득은 경상소득으로 이는 통계청 기준으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및 부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으로 구성된다. 일반적인 소득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표 2〉 소득의 정의

통계청				LIS(또는 OECD)				
소득	경상소득	근로소득		compensation of employees	1차 소득 (primary income)	시장소득 (market income: MI)	총소득 (gross income: GI)	가처분 소득 (disposable income: DI)
		사업 및 부업소득		gross self-employment income				
		재산소득		realized property income				
		이전 소득	사적	occupational pensions + other cash income)				
			공적	social insurance cash transfers + social assistance				
지출	비소비지출	공적연금		social security contributions				
		사회보험		(사회보장부담금: 공적연금, 건강·고용보험 등)				
		조세		direct taxes (소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등)				
		기타 비경상지출						

자료: 여유진 외(2005)

복지패널에서 조세 및 사회보장 부담금 항목이 월평균 지출액으로 조사되어 이를 연평균금액으로 환산하여 가처분소득을 계산할 수 있다. 그러나 이 항목이 연평균지출액으로 보이는 경우와 혼재되어 있어서 본 연구에서는 가처분소득을 사용하지 않았다.

제2절 가구자산의 특징

우리나라 가계 자산 포트폴리오의 가장 큰 특징은 전 생애주기에 걸쳐 주택자산의 규모가 압도적으로 크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 전 생애주기에 걸쳐 은행저축이 금융자산 중에서 가장 비중이 높았다. 가계부채 포트폴리오의 특징을 살펴보면 부채가 있는 가구가 전체 가구의 약 절반에 이르며, 40대에서 총부채액이 가장 많았다. 또, 많은 경우 주거용 부동산구입 시점에 은행권 대출이 급증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할부 및 외상잔액도 상당한 규모에 이르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젊은 가구주들이 유가증권을 많이 보유하고 있었다.

OECD 균등화지수를 이용하여 가계순자산 규모를 가구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대에 최저 규모에서 60대 초반에 정점에 달하였다가 그 이후 점차로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순자산이 가구주가 은퇴하는 시점까지 점진적으로 증가하다가 은퇴시점 이후부터는 감소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생애주기-항상소득가설에서 추론되는 자산축적행태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표 3〉 가구주 연령대별 순자산의 규모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
가구(수)	2	203	1,109	1,319	1,029	1,340	1,212	352	14
가중치	0.2	3.8	23.0	25.1	16.7	16.7	11.5	2.9	0.1
부동산	313.2	3,173.4	6,463.4	9,837.2	12,759.7	16,102.2	10,227.3	7,881.2	4,643.8
금융	155.8	1,179.9	1,905.4	1,724.9	1,904.4	2,582.1	1,274.4	1,328.7	129.9
기타	0	291.6	401.9	410.8	458.1	395.2	136.4	67.5	0
총자산	469.1	4,644.9	8,770.6	11,973.0	15,122.3	19,079.6	11,638.2	9,277.5	4,773.8
총부채	9.4	808.4	1,558.7	1,983.4	1,874.8	1,855.3	981.3	470.2	73.9
순자산	459.7	3,836.5	7,162.3	9,852.0	12,940.1	15,350.4	10,530.3	8,696.0	4,699.8

주: 1) 각 평균값은 가구균등화 된 값임

2) 순자산 분포의 양 극단 1%는 극단의 경계값으로 대체하였음

3) 10억 이상의 부채 2가구는 missing으로 대체함

제3절 빈곤가구의 정의

1. 소득빈곤

이 장에서는 다양한 기준을 이용하여 빈곤가구를 정의하였는데, 소득빈곤은 크게 절대빈곤과 상대빈곤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절대빈곤은 최저생계비와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구분하며, 빈곤·차상위·차차상위 가구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표 4〉 절대빈곤 계층의 구분

구분		소득인정액 기준
빈곤	절대빈곤	소득인정액 < 최저생계비
비빈곤	차상위	최저생계비 ≤ 소득인정액 ≤ 최저생계비 × 120%
	차차상위	최저생계비 × 120% < 소득인정액 ≤ 최저생계비 × 150%
	일반	최저생계비 × 150% < 소득인정액

절대빈곤가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미만으로 정의되며, 차상위는 최저생계비 100%이상 120%이하, 차차상위는 120%초과 150%이하인 가구로 정의된다. 소득인정액이 150%를 초과하는 경우는 일반가구로 분류한다.

상대기준은 연구자의 선호나 연구목적에 따라 중위소득의 40%, 50%, 60%를 기준선으로 보고 가구소득이 기준선 미만이면 소득상대빈곤가구로 정의하는 것이다.

〈표 5〉는 한국복지패널 2차, 3차의 전체 표본가구를 절대 및 상대적 기준으로 구분하여 전체가구 내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먼저 절대소득빈곤가구는 2차 전체가구의 10.2%, 3차 전체가구의 9.5%로 3차의 절대빈곤율이 다소 낮으며, 차상위, 차차상위 가구의 비율은 그보다 적다. 상대빈곤가구는 절대빈곤가구의 비율보다 높으며, 중위소득 40% 기준으로는 2차 14.7%, 3차 14.8%임을 알 수 있다.

〈표 5〉 소득빈곤 가구 점유율

구분		절대소득빈곤			상대소득빈곤		
		빈곤	차상위	차차상위	중위 40%	중위 50%	중위 60%
2차	가구수	1,149	248	328	1,647	2,263	2,759
	가중치(%)	10.2	2.6	3.8	14.7	21.1	26.7
3차	가구수	1,018	215	284	1,555	2,122	2,600
	가중치(%)	9.5	2.2	3.3	14.8	20.5	26.5

주: 복지패널 2·3차년도 자료를 이용함

2. 자산빈곤

자산빈곤을 구분하는 기준은 소득빈곤과는 달리 구체적인 정의가 없으나 빈곤이 생계의 최소한의 이하임을 감안하여 자산빈곤의 개념을 적용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자산빈곤도 소득빈곤과 마찬가지로 절대와 상대의 기준을 적용하였으며, 가구의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을 구분의 기준으로 한다.

자산절대빈곤은 자산빈곤의 정의인 “일정기간동안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자산유형(wealth-type)을 가지지 못한 가구”라는 Haveman and Wolff(2001)의 개념을 기본으로 정의한다. 먼저 “일정기간”은 소득이 없을 때 자산으로 가구의 지출을 충당할 수 있는 타당한 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고용이 소득을 창출하기 때문에 실업상태에서 고용이 되는 기간을 소득의 발생에 합리적인 기간으로 정의하였다. 실업상태에서 6개월 이상의 실업자를 장기 실업자로 분류하는 것을 감안하여 이 기간을 6개월로 규정하였다. 또한,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만큼”의 기준은 최저생계비의 개념과 유사하므로 절대기준은 순자산이 최저생계비 6개월 금액에 미달하는 가구로 정의하였다.

상대기준은 소득상대빈곤과 마찬가지로 순자산 중위값의 40%, 50%, 60%에 미달하는 가구로 정의할 수 있다. 절대기준은 다시 2가지로 정의하였는데 각 가구의 최저생계비 6개월 기준과, 전체 가구의 최저생계비 6개

월 금액을 가구가중치를 고려하여 계산한 값이다.

〈표 6〉에 나타난 같이, 전자의 기준으로 분류된 절대자산빈곤 가구는 2차의 경우 전체가구의 13.3%, 3차의 경우 12.4%이며, 후자의 기준으로 분류된 가구는 각각 13.5%, 12.7%이다. 〈표 6〉에서 각 가구의 최저생계비 6개월 기준을 적용했을 때 보다 전체 가구의 최저생계비 6개월 금액기준을 적용한 경우 더 많은 가구가 절대빈곤가구로 분류된다. 또한 순자산 중위값의 40%를 기준으로 한 상대자산빈곤 가구는 2차 29.3%, 3차 29.4%로, 동일한 개념의 상대소득빈곤가구가 전체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볼 때 2배 가량 높다.

〈표 6〉 자산빈곤 가구 점유율

구분		절대자산빈곤		상대자산빈곤		
		각 가구의 최저생계비	가구평균 최저생계비	중위 40%	중위 50%	중위 60%
2차	가구수	1,163	1,188	2,416	2,676	2,956
	가중치(%)	13.3	13.5	29.3	33.0	37.1
3차	가구수	1,080	1,121	2,338	2,610	2,869
	가중치(%)	12.4	12.7	29.4	33.6	37.7

주: 복지패널 2·3차년도 자료를 이용함

제4절 자산빈곤가구의 실태

1. 자산빈곤가구의 일반적 특징

가구주 인구학적 특성 및 지역 등에 따른 자산빈곤가구의 현황을 비교할 수 있다. 자산빈곤의 기준은 가구의 최저생계비 6개월 금액인 절대자산빈곤의 기준을 이용하였다.

가. 가구주 연령별 자산빈곤 현황

가구주 연령에 따른 빈곤을 구분하면, 60대의 빈곤율이 9.9%로 가장 낮으며 90대의 빈곤율이 37.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90대의 표본의 수가 적은 것을 감안한 경우 70대 17.1%, 80대 27.5%로 70대 이상 고 연령층의 빈곤율이 높으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빈곤층에 속하는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가구주 연령별 자산빈곤

구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	계
전체	가구(수)	2	203	1,109	1,319	1,029	1,340	1,212	352	14	6,580
	가중치(%)	[0.2]	[3.8]	[23.0]	[25.1]	[16.7]	[16.7]	[11.5]	[2.9]	[0.1]	100.0
빈곤	가구(수)	0	30	139	268	192	185	236	107	6	1,163
	가중치(%)	(0)	(14.8)	(10.0)	(14.9)	(13.1)	(9.9)	(17.1)	(27.5)	(37.1)	(13.3)
부채	가구(수)	2	173	970	1,051	837	1,155	976	245	8	5,417
	가중치(%)	(100.0)	(85.2)	(90.0)	(85.1)	(86.9)	(90.1)	(82.9)	(72.5)	(62.9)	(86.7)

주: []내 수치는 행 구성비이고, ()내의 수치는 열 구성비임

자산빈곤가구의 경상소득은 20대 가구가 1,789만원으로 가장 높으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대체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순자산은 40대 가구가 -909.0만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40대 이후로는 순자산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들 가구의 순자산 증가 원인은 총자산의 증가분이 부채의 증가분보다 더 크기 때문이다.

〈표 8〉 가구주 연령별 자산빈곤 현황

구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
가구(수)		30	139	268	192	185	236	107	6
가중치(%)		0.6	2.3	3.7	2.2	1.6	2.0	0.8	0.0
소득	근로	1,438.7	1,127.9	780.7	687.2	254.3	35.5	22.0	44.3
	사업	104.3	96.4	192.4	211.3	68.0	35.1	22.5	0
	재산	0	0.5	1.4	4.9	5.1	3.1	3.9	0
	공적이전	54.3	100.2	138.3	174.9	211.5	217.8	153.2	137.1
	사적이전	192.2	77.1	96.0	138.6	179.7	285.0	315.9	347.6
	경상	1,789.6	1,402.1	1,208.9	1,217.2	718.6	576.4	517.5	529.0
자산	부동산	196.5	514.4	676.4	751.3	690.8	157.8	54.5	0
	금융	445.9	226.9	122.2	137.0	65.2	44.0	65.0	132.1
	기타	180.0	132.5	63.5	56.1	43.2	8.5	0.8	0
	총자산	822.5	873.9	862.1	944.5	799.2	210.3	120.3	132.1
	총부채	1,006.4	2,102.7	2,198.6	2,583.5	1,557.2	391.8	74.1	0
	순자산	-183.9	-754.5	-909.0	-883.8	-469.7	-172.0	46.2	132.1

나. 가구주 교육수준별 자산빈곤 현황

전체 가구 중 가구주의 교육수준은 ‘고등학교’가 33.0%로 가장 많았으며 ‘대학교’ 29.3%, ‘초등학교’ 13.4%의 순으로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교육수준별로 각 계층의 자산빈곤가구 비율을 살펴보면 ‘무학’이 27.0%로 빈곤율이 가장 높았으며, ‘초등학교’ 16.7%, ‘중학교’ 16.0%로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각 그룹에서 자산 빈곤에 포함되는 비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가구주 교육수준별 자산빈곤

	구분	무학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무응답	계
전체	가구(수)	1,200	1,213	794	1,870	1,359	130	14	6,580
	가중치(%)	[9.7]	[13.4]	[11.3]	[33.0]	[29.3]	[3.2]	[0.4]	[100.0]
빈곤	가구(수)	339	230	150	308	124	12	0	1,163
	가중치(%)	(27.0)	(16.7)	(16.0)	(13.7)	(6.5)	(6.1)	(0.0)	(13.3)
일반	가구(수)	861	983	644	1,562	1,235	118	14	5,417
	가중치(%)	(73.0)	(83.3)	(84.0)	(86.3)	(93.5)	(93.9)	(0.4)	(86.7)

주: 1) 수료 및 졸업인 경우의 학력기준임

2) 대학은 전문대학과 대학이며, 대학원은 석·박사임

해당가구의 가구주 교육수준 별로 소득과 자산항목을 비교해 보면 경상 소득은 ‘대학원’이 1,898.9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무학’이 571.5만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의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경상소득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순자산은 ‘무학’이 -72.5만원으로 가장 높고 ‘대학원’이 -943.8만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순자산은 경상소득과는 반대로 가구주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순자산을 구성하는 총자산과 총부채를 비교해 보면 총자산은 ‘무학’이 184.8만원으로 가장 낮고, ‘대학원’이 1,875.5만원으로 가장 높으며 가구주 교육수준이 증가할수록 총자산과 총부채가 모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순자산은 이와는 반대로 나타나는데 이는 학력이 증가함에 따라 총 부채가 총자산보다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음(-)의 순자산(엄밀히는 순부채) 규모가 더 크게 나타난다.

〈표 10〉 가구주 교육수준별 자산빈곤 현황

구분		무학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가구(수)		339	230	150	308	124	12
가중치(%)		2.6	2.2	1.8	4.5	1.9	0.2
소득	근로	92.8	353.5	611.0	898.1	986.9	1,283.6
	사업	30.5	80.5	158.4	144.7	196.8	448.1
	재산	3.9	2.5	5.6	1.7	0.8	0
	공적이전	219.1	186.3	141.5	142.0	89.1	85.0
	사적이전	225.2	184.9	136.0	115.6	154.9	82.2
	경상	571.5	807.7	1,052.5	1,302.1	1,428.5	1,898.9
자산	부동산	125.4	375.2	634.8	600.3	987.2	299.7
	금융	48.5	56.0	114.7	117.7	267.3	1,418.6
	기타	10.8	32.1	68.5	80.4	123.7	157.1
	총자산	184.8	463.3	818.0	798.5	1,378.2	1,875.5
	총부채	263.2	1,036.9	1,802.1	2,071.4	3,191.3	4,681.5
	순자산	-72.5	-481.8	-567.6	-899.4	-893.6	-943.8

다. 지역별 자산빈곤 현황

전체가구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경기’지역이 27.0%로 가장 높고, ‘서울’이 21.1%로 표본 가구의 절반 정도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다. 지역별 빈곤과 일반가구의 비율을 보면 빈곤율은 ‘서울’지역 9.9%, ‘경기’ 지역 12.7%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전라·제주’지역이 19.3%로 빈곤률이 가장 높으며, ‘경북’ 14.7%, ‘충남’ 13.9% 순이다.

〈표 11〉 지역별 자산빈곤

구분		서울	경기	경남	경북	충남	충북 강원	전라 제주	계
전체	가구(수)	1,198	1,413	1,153	864	507	434	1,011	6,580
	가중치(%)	[21.1]	[27.0]	[16.9]	[10.1]	[7.3]	[6.2]	[11.3]	[100.0]
빈곤	가구(수)	159	217	223	164	86	72	242	1,163
	가중치(%)	(9.9)	(12.7)	(13.3)	(14.7)	(13.9)	(12.8)	(19.3)	(13.3)
일반	가구(수)	1,039	1,196	930	700	421	362	769	5,417
	가중치(%)	(90.1)	(87.3)	(86.7)	(85.3)	(86.1)	(87.2)	(80.7)	(86.7)

자산빈곤가구의 지역별 소득과 자산을 비교해보면 경상소득은 ‘경남’지역이 1,247.8만원, ‘서울’지역이 1,138.5만원 순으로 높으며 ‘충남’지역 910.0만원 ‘전라·제주’지역 922.5만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순자산은 ‘경북’지역이 -379.0만원, ‘충남’지역이 -595.9만원 순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서울’지역의 경우 총자산이 821.9만원으로 ‘경남’지역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부채가 2,314.3만원으로 다른 지역보다 현저하게 크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표 12〉 지역별 자산빈곤 현황

구분		서울	경기	경남	경북	충남	충북·강원	전라·제주
가구(수)		159	217	223	164	86	72	242
가중치(%)		2.1	3.4	2.2	1.5	1.0	0.8	2.2
소 득	근로	614.1	722.8	717.7	676.1	497.6	561.6	449.0
	사업	187.0	97.6	152.4	84.1	86.1	117.5	131.0
	재산	1.8	0.6	6.1	0.4	6.8	2.4	2.7
	공적이전	148.3	123.0	200.0	177.3	188.5	132.7	149.7
	사적이전	187.3	130.6	171.7	126.3	131.0	145.9	190.1
	경상	1,138.6	1,074.5	1,247.8	1,064.3	910.0	960.1	922.5
	부동산	664.0	510.3	603.5	478.0	428.0	453.4	435.7
자 산	금융	119.6	99.6	312.5	75.8	52.6	71.9	120.1
	기타	38.3	65.8	78.7	67.1	50.5	34.3	87.6
	총자산	821.9	675.7	994.7	621.0	531.1	559.5	643.4
	총부채	2,314.3	1,531.2	2,080.6	1,267.9	1,308.8	1,207.9	1,686.7
	순자산	-897.6	-614.7	-662.1	-379.0	-595.9	-629.0	-498.2

라. 지역권별 자산빈곤 현황

지역을 5개의 권역으로 분류하여 가구의 비율을 보면, ‘시’가 44.6%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며 ‘광역시’ 25.1%, ‘서울’ 21.1% 순으로 나타났다.

자산빈곤율은 ‘광역시’ 15.8%, ‘군’ 15.6%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서울’의 빈곤율이 9.9%로 지역을 5개의 권역으로 분류하였을 경우에도 가장 낮음을 알 수 있다.

〈표 13〉 지역권별 자산빈곤

구분		서울	광역시	시	군	도농복합군	계
전체	가구(수)	1,198	1,673	2,076	1,419	214	6,580
	가중치(%)	[21.1]	[25.1]	[44.6]	[8.2]	[1.0]	[100.0]
빈곤	가구(수)	159	356	348	271	29	1,163
	가중치(%)	(9.9)	(15.8)	(13.1)	(15.6)	(12.2)	(13.3)
일반	가구(수)	1,039	1,317	1,728	1,148	185	5,417
	가중치(%)	(90.1)	(84.2)	(86.9)	(84.4)	(87.8)	(86.7)

자산빈곤가구의 지역권별 소득과 자산항목을 비교해 보면 경상소득은 ‘서울’지역이 1,138.5만원으로 가장 높고, ‘시’ 1,107.1만원, ‘광역시’ 1,069.0만원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군’은 경상소득이 775.2만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순자산은 ‘군’이 -370.3만원으로 가장 높으며, ‘서울’이 -897.5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서울’지역의 순자산이 가장 낮게 나온 이유는 총자산이 가장 낮기 때문이 아니라 부채가 가장 많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표 14〉 지역권별 자산빈곤 현황

		서울	광역시	시	군	도농복합군
가구(수)		159	356	348	271	29
가중치(%)		2.1	4.0	5.8	1.3	0.1
소득	근로	614.1	646.1	695.0	283.9	615.0
	사업	187.0	95.7	121.3	138.7	75.0
	재산	1.8	1.0	3.6	2.9	20.1
	공적이전	148.3	190.3	135.5	161.9	104.0
	사적이전	187.3	135.9	151.8	187.9	223.7
	경상	1,138.6	1,069.0	1,107.1	775.2	1,037.8
자산	부동산	664.0	535.8	516.9	332.6	137.7
	금융	119.6	92.1	179.9	79.5	137.0
	기타	38.3	49.7	79.4	82.6	76.4
	총자산	821.9	677.6	776.2	494.7	351.0
	총부채	2,314.3	1,455.6	1,766.4	1,007.4	4,128.9
	순자산	-897.6	-569.0	-611.1	-370.3	-661.9

마. 가구원수별 자산빈곤 현황

가구원수별로는 전체가구 중 4인가구가 29.1%로 가장 많고, 2인가구 23.4%, 3인가구 22.2% 순으로 나타났다.

자산빈곤의 경우 1인가구의 빈곤율이 26.1%로 가장 높고, 5인가구 12.8%, 3인가구 11.9%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5〉 가구원수별 자산빈곤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계
전체	가구(수)	1,452	1,936	1,255	1,415	420	86	15	1	6,580
	가중치(%)	[16.1]	[23.4]	[22.2]	[29.1]	[7.6]	[1.3]	[0.3]	[0.0]	[100.0]
빈곤가	가구(수)	436	264	198	184	73	6	2	0	1,163
	가중치(%)	(26.1)	(11.2)	(11.9)	(9.2)	(12.8)	(8.8)	(6.2)	(0.0)	(13.3)
일만	가구(수)	1,016	1,672	1,057	1,231	347	80	13	1	5,417
	가중치(%)	(73.9)	(88.8)	(88.1)	(90.8)	(87.2)	(91.2)	(93.8)	(100.0)	(86.7)

가구원수별 소득은 3인가구가 1,290.5만원으로 가장 크며 4인가구 1,286.5만원, 5인가구 1,234.0만원 순이다. 1인가구의 소득이 824.3만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순자산은 5인가구가 -1,038.7만원으로 가장 낮으며, 7인가구의 표본이 작은 것을 감안하면 1인가구가 -450.9만원으로 가장 높다. 그러나 1인가구의 순자산이 가장 높은 것은 총자산이 크기 때문이 아닌 총부채가 낮은 데 기인한다.

〈표 16〉 가구원수별 자산빈곤 현황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가구(수)		436	264	198	184	73	6	2
가중치(%)		4.2	2.6	2.6	2.7	1.0	0.1	0.0
소득	근로	354.5	536.6	846.9	899.2	697.6	729.8	566.2
	사업	80.4	43.7	157.3	201.2	247.9	98.3	11.1
	재산	4.4	0.0	1.3	4.0	1.9	0	0
	공적이전	161.8	191.0	149.1	125.5	137.8	157.3	309.5
	사적이전	223.2	175.8	135.8	56.5	148.8	188.3	46.1
	경상	824.3	947.2	1,290.5	1,286.5	1,234.0	1,173.7	933.0
자산	부동산	195.5	517.3	592.7	832.9	851.5	1,275.7	133.3
	금융	90.5	99.5	213.6	186.6	68.8	42.2	48.8
	기타	17.0	53.1	101.4	114.5	62.4	58.3	1.1
	총자산	303.0	669.9	907.7	1,134.0	982.8	1,376.3	183.1
	총부채	1,010.4	2761.2	3,070.8	2,488.3	2,357.3	2,247.0	106.6
	순자산	-450.9	-585.8	-622.2	-763.4	-1,038.7	-870.7	76.5

바. 가구주 경제활동 참여 상태별 자산빈곤 현황

가구주 경제활동 참여 상태는 크게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근로자, 고용주, 자영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로 구분할 수 있다. 상용직은 고용계약이 1년 이상이거나 특별히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회사 내규에 의해 채용되어 있는 근로자를 말한다. 임시직은 1개월 이상 1년 미만의 임금근로자나 일정한 사업완료의 필요에 의해 고용된 근로자이며, 일용직은 고용계약이 1개월 미만인 임금근로자가 이에 해당된다. 고용주는 한 사람 이상 피고용인을 두고 기업을 경영하는 자이며, 자영업자는 유급종업원 없이 혼자 또는 무급가족 종사자들과 함께 일을 하거나 전문적인 일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실업자는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지난 4주 동안 일할 의사와 능력을 갖고 있으나 일하지 못하고 구직활동을 한 경우이며, 비경제활동인구는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도 실업도 아닌 상태에 있는 경우가 해당된다.

전체 가구 중 상용직 근로자가 40.5%로 가장 많고, 비경제활동인구

22.0%, 자영업자 16.7%순이었다.

가구주의 경제활동 참여 상태별 자산빈곤 현황을 살펴보면, 일용직이 22.1%로 가장 높으며, 비경제활동인구 21.8%, 실업자 21.2%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17〉 가구주 경제활동 상태별 자산빈곤

구분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고용주	자영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	무응답	계
전체	가구(수)	1,874	364	518	183	1,471	224	1,945	1	6,580
	가중치(%)	[40.5]	[5.9]	[7.4]	[4.2]	[16.7]	[3.4]	[22.0]	[0.0]	[100.0]
빈곤	가구(수)	172	89	175	7	129	60	531	0	1,163
	가중치(%)	(6.9)	(22.1)	(30.5)	(3.6)	(7.5)	(21.2)	(21.8)	(0.0)	(13.3)
일부만	가구(수)	1,702	275	343	176	1,342	164	1,414	1	5,417
	가중치(%)	(93.1)	(77.9)	(69.5)	(96.4)	(92.5)	(78.8)	(78.2)	(100.0)	(86.7)

주: 1) 자활근로 및 공공근로의 경우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서 실시하는 자활근로 또는 공공근로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며 이들의 경우 임시직으로 포함시킴
 2) 무급가족종사자의 경우 자기 가구에서 경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에서 무급으로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자이며 자영업자로 포함시킴

가구가 고용주인 경우 경상소득이 2,056.5만원으로 가장 높고, 상용직 근로자 1,668.1만원, 임시직 1,261.7만원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가구의 순자산은 고용주인 경우 -1,637.2만원으로 가장 낮고, 비경제활동가구 -281.5만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총자산의 경우 4,558.9만원으로 고용주인 경우가 가장 높으며, 비경제활동가구는 375.2만원으로 가장 높다. 고용주가구주의 순자산이 가장 낮은 이유는 총자산은 다른 그룹보다 크나 총부채 또한 크기 때문이다.

〈표 18〉 가구주 경제활동 상태별 자산빈곤 현황

구분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고용주	자영업자	실업자	비경제 활동인구
가구(수)	172	89	175	7	129	60	531
가중치(%)	2.8	1.3	2.3	0.1	1.3	0.7	4.8
소득	근로	1,498.7	935.6	826.5	438.0	160.9	422.0
	사업	43.1	66.4	39.6	1,449.7	812.5	28.2
	재산	0.1	1.9	1.2	59.7	1.3	0.1
	공적이전	73.9	132.4	91.3	87.9	96.5	177.1
	사적이전	72.2	125.5	106.5	21.1	73.4	162.9
	경상	1,688.1	1,261.7	1,065.1	2,056.5	1,144.6	790.3
자산	부동산	723.8	563.4	472.9	3,295.6	641.4	485.4
	금융	322.2	146.1	50.3	1,106.7	101.3	61.1
	기타	130.7	38.6	45.5	156.6	183.6	35.4
	총자산	1,176.7	748.1	568.7	4,558.9	926.3	581.9
	총부채	2,394.8	1,532.6	2,253.6	9,576.0	1,989.5	1,575.0
	순자산	-818.0	-694.7	-871.1	-1,637.2	-799.8	-676.7

사. 가구주 직종별 자산빈곤 현황

전체가구를 가구주의 직종별로 구분하면 사무직 및 서비스직이 24.2%로 가장 많이 종사하고 있으며 (무응답제외), 기능직 19.3%, 단순노무가 12.2% 순으로 나타났다.

각 직종그룹별 자산빈곤가구의 비율은 단순노무직이 19.5%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능직이 10.5%, 사무직 및 서비스직이 10.1% 순임을 알 수 있다. 전문직과 준전문직이 빈곤층에 속하는 비율은 각각 2.8%, 4.6%로 그룹 중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19〉 가구주 직종별 자산빈곤

구분		전문직	준전문직	사무직 서비스직	농림어업	기능직	단순노무	무응답	계
전체	가구(수)	263	293	1,211	838	986	819	2,170	6,580
	가중치(%)	[6.5]	[6.5]	[24.2]	[6.0]	[19.3]	[12.2]	[25.4]	[100.0]
빈곤	가구(수)	12	16	160	64	124	196	591	1,163
	가중치(%)	(2.8)	(4.6)	(10.1)	(7.2)	(10.5)	(19.5)	(21.7)	(13.3)
영빈	가구(수)	251	277	1,051	774	862	623	1,579	5,417
	가중치(%)	(97.2)	(95.4)	(89.9)	(92.8)	(89.5)	(80.5)	(78.3)	(86.7)

주: 1) 전문직은 의회의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과학·공학·교육·보건의료·법률등 전문가

2) 준전문직은 과학관련 기술종사자, 교육준전문가, 보건의료등 준전문가

3) 사무직 및 서비스업은 일반사무직, 서비스직, 판매종사자

4) 농림어업은 농업숙련자, 임업숙련자, 어업숙련자

5) 기능직은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장차·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6) 단순노무직은 서비스관련·농림어업·제조관련 등 단순노무 종사자

〈표 20〉 가구주 직종별 자산빈곤 현황

구분	전문직	준전문직	사무직 서비스직	농림어업	기능직	단순노무	무응답	
가구(수)	12	16	160	64	124	196	591	
가중치(%)	0.2	0.3	2.4	0.4	2.0	2.4	5.5	
소득	근로	1726.8	823.2	1,054.6	255.5	1,188.5	791.0	144.5
	사업	309.8	288.4	325.5	420.2	121.4	71.6	23.4
	재산	0	0	3.9	0.2	1.8	1.1	3.4
	공적이전	22.9	86.1	88.0	109.2	74.3	116.1	245.3
	사적이전	24.3	136.8	114.6	102.2	38.0	107.0	250.2
	경상	2,083.9	1,334.5	1,586.7	887.5	1,424.1	1,086.9	666.9
자산	부동산	1602.8	811.5	745.9	415.7	748.0	449.8	335.0
	금융	72.1	192.2	402.9	128.2	125.6	54.5	52.3
	기타	113.5	91.3	118.4	200.7	122.3	42.4	14.8
	총자산	1,788.4	1,095.2	1,267.2	744.6	996.0	546.7	402.1
	총부채	2648.0	2,622.8	2,608.6	1,610.7	2,686.6	1,659.6	901.3
	순자산	-843.8	-1,109.1	-844.9	-577.9	-978.0	-684.6	-333.1

자산빈곤가구의 경상소득은 전문직이 2,083.9만원으로 가장 높고, 사무 및 서비스직 1,586.7만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들 가구의 순자산은 농림어업가구가 -577.9만원, 단순노무가 -684.6만

원 순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해당 그룹은 다른 그룹에 비해 총자산이 적으나 부채의 값이 더 적어서 순자산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자산빈곤가구의 소득 및 자산 실태

자산빈곤의 기준이 각 가구의 6개월간 최저생계비인 경우 자산빈곤가구의 경상소득이 1,068.2만원, 순자산은 -621.0만원이다. 이 기준이 가구전체의 최저생계비 6개월 평균값일 때, 경상소득 1,062.8만원, 순자산 -604.4만원으로 두 경우에 값의 큰 차이는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상대자산빈곤 가구는 경상소득 1,186.8만원, 순자산 337.6만원으로 절대자산빈곤가구보다 소득과 자산의 평균값이 더 크다.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분류되는 절대소득빈곤가구의 경상소득은 518.5만원, 순자산은 120.8만원이며 상대소득빈곤가구의 경우는 각각 466.4만원, 4,587.5만원으로 경상소득은 절대소득빈곤가구가, 순자산은 상대소득빈곤가구가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표 21〉 자산·소득빈곤에 따른 자산 및 소득 현황

(단위: 만원)

구분		자산빈곤			소득빈곤		
		절대빈곤		상대빈곤	절대빈곤		상대빈곤
기준선	6개월간 최저생계비	6개월간 최저생계비 평균값 ¹⁾	순자산 중위값 40% ²⁾	소득인정액 ³⁾	경상소득 ⁴⁾	경상소득 중위값 40% ⁵⁾	
가구(수)	1,163	1,188	2,416	1,149	1,544	1,647	
가중치(%)	13.3	13.5	29.3	10.1	13.7	14.7	
소득	근로소득	627.4	623.7	775.2	108.3	73.4	79.3
	사업소득	125.3	121.9	137.3	34.1	43.1	46.2
	자산소득	2.6	2.6	2.4	2.1	21.4	21.9
	사적이전	156.8	158.6	142.9	130.9	174.4	177.0
	공적이전	156.1	156.0	129.8	243.6	141.2	142.3
	경상소득	1,068.2	1,062.8	1,186.8	518.5	453.0	466.4
자산	부동산	524.6	518.7	917.5	802.7	4,626.8	4,662.4
	금융	145.8	135.1	228.8	106.8	514.2	505.4
	기타	64.3	63.6	103.9	24.9	87.8	89.2
	총자산	723.1	717.4	1,250.2	934.5	5,228.8	5,257.0
	총부채	2,174.2	2,136.7	1,288.7	813.7	847.3	839.5
	순자산	-621.0	-604.4	337.6	120.8	4,563.3	4,587.5

주: 1) 6개월간 최저생계비 평균값인 318.2 만원 미만

2) 순자산 중위값의 40%인 2,013.7 만원 미만

3) 최저생계비 미만의 소득 인정액

4) 경상소득 기준 645.7 만원 미만이며,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근방에 존재하는 가구들의 평균임

5) 경상소득 중위값의 40%인 667.8 만원 미만

6) 자산과 소득의 모든 항목은 균등화지수를 적용함

7) 사업소득의 음수값은 0으로 대체하여, 경상소득은 모두 0이상임

8) 순자산 분포의 양 극단 1%는 극단의 경계값으로 대체하였음

9) 복지패널 2차 자료를 이용하여 직접 계산한 값임

10) 3차는 2차의 값과 유사한 양상을 보이므로 부록에 수록함

3. 절대자산빈곤가구

소득으로만 구분된 계층을 자산빈곤 기준을 적용하여 2차원으로 구분하면 구분된 계층내의 소득 및 자산의 차이가 현저하게 나타난다. 즉, 소득기준으로 구분된 소득빈곤가구를 자산빈곤기준을 적용하여 재분류하면 소득빈곤가구나 비빈곤가구를 내에서 존재하는 자산빈곤가구와 자산비빈곤가구를 구분할 수 있으며 이들 그룹 간 소득과 자산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표 22>와 <표 23>은 자산과 소득을 모두 절대기준으로 구분하여 각 계층의 소득과 자산을 정리한 것이다. <표 22>와 같이 절대소득빈곤가구를 자산기준으로 나누면 그 중 599가구가 자산빈곤가구로, 550가구가 비빈곤가구로 분류된다. 이러한 2차원 구분 하에서 소득·자산기준으로 모두 빈곤가구인 경우의 소득 및 순자산이 가장 낮게 나타난다. 소득 빈곤 가구내에서 구분된 가구들의 경상소득은 자산빈곤가구가 541.4만원, 비빈곤가구가 493.9만원으로 자산빈곤가구의 경상소득이 더 높지만, 순자산의 경우 자산빈곤가구가 -353.7만원, 비빈곤가구가 1,273.4만원으로 비빈곤가구의 순자산이 훨씬 많음을 알 수 있다.

우리의 경우 순자산을 기준으로 빈곤 가구의 실태를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총자산 뿐만 아니라 총부채 규모 또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표 20>과 같이 자산빈곤 가구를 대상으로 절대빈곤, 차상위, 차차상위가구를 각각 구분하면, 빈곤가구에서 차상위, 차차상위, 차차상위이상 가구로 갈수록 총자산의 값은 대체로 증가하나 부채의 증가폭이 자산의 증가폭보다 큼으로 인하여 순자산은 점차 감소한다.

또한 절대빈곤 기준으로 소득과 자산의 값을 정의하여 구분한 경우도 소득을 기준으로 한 빈곤가구와 비빈곤가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경상소득은 빈곤가구 460.7만원, 비빈곤가구 1,363.0만원으로 비빈곤가구가 더 크다. 그러나 순자산은 빈곤가구 -303.7만원, 비빈곤가구 -754.3만원으로 빈곤가구의 순자산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총자산의 영향보다는 부채의 영향이 크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비빈곤가구의 경우 부채가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내외인 반면 절대자산빈곤가구의 경우 부채의 규모가 경상소득의 2배, 총자산의 3배에 달하고 있어, 절대자산빈곤 가구는 총자산이 적은 문제 뿐 아니라 과도한 부채가 가계재정에 주는 부담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표 22〉 자산·소득빈곤에 따른 자산 및 소득 현황 (절대빈곤 기준)

구분		전체	빈곤	비빈곤 (일반)				
				비빈곤 전체	차상위	차차상위	차차상위 이상	
자산빈곤 가구	가구(수)	1,163	599	564	104	113	347	
	가중치(%)	13.3	5.3	8.0	1.2	1.5	5.3	
	소득	근로소득	627.4	113.7	965.0	359.6	544.7	1219.7
		사업소득	125.3	27.9	189.2	82.2	131.7	229.6
		자산소득	2.6	1.3	3.5	3.1	3.9	3.5
		사적이전	156.8	127.8	175.8	211.2	182.8	165.8
		공적이전	156.1	270.8	80.8	128.5	85.8	68.4
	자산	경상소득	1068.2	541.4	1414.3	784.6	949.0	1687.0
		부동산	524.6	326.9	654.5	475.3	489.2	741.1
		금융	134.2	39.1	196.7	55.8	78.6	261.5
		기타	64.3	11.1	99.3	29.3	36.6	132.6
		총자산	723.1	377.1	950.4	560.3	604.3	1135.3
		총부채	2174.2	1330.0	2728.9	1958.2	1510.9	3240.5
		순자산	-621.0	-353.7	-796.6	-603.6	-632.4	-886.2
일반 가구	가구(수)	5,417	550	4,867	144	215	4,508	
	가중치 (%)	86.7	4.9	81.8	1.3	2.3	78.1	
	소득	근로소득	1,391.1	102.4	1,467.8	255.6	404.4	1,520.0
		사업소득	432.7	40.8	456.1	93.7	126.1	472.1
		자산소득	98.1	2.9	103.8	7.7	3.6	108.4
		사적이전	137.7	134.2	137.9	216.1	195.4	134.9
		공적이전	126.7	214.4	121.4	98.0	84.4	122.9
	자산	경상소득	2,184.5	493.9	2,285.7	671.0	813.9	2,356.8
		부동산	11,823.9	1,313.5	12,453.1	1,988.8	1,802.4	12,946.6
		금융	2,116.0	179.6	2,231.9	126.8	225.3	2,327.2
		기타	413.5	39.7	435.9	46.3	57.8	453.8
		총자산	14,353.4	1,532.8	15,121.0	2,161.8	2,085.6	15,727.5
		총부채	1,628.2	259.4	1,710.1	443.0	434.2	1,769.5
		순자산	12,175.9	1,273.4	12,828.6	1,718.8	1,651.4	13,348.7
전체	가구(수)	6,580	1,149	5,431	248	328	4,855	
	가중치 (%)	100.0	10.2	89.8	2.6	3.8	83.5	
	소득	근로소득	1,289.7	108.3	1,423.0	305.2	458.8	1,500.8
		사업소득	391.9	34.1	432.3	88.2	128.3	456.6
		자산소득	85.5	2.1	94.9	5.5	3.7	101.8
		사적이전	140.2	130.9	141.3	213.7	190.5	136.8
		공적이전	130.6	243.6	117.8	112.5	84.9	119.5
	자산	경상소득	2,033.8	518.5	2,208.1	725.2	866.3	2,314.1
		부동산	10,325.1	802.7	11,401.9	1,266.8	1,293.1	12,169.1
		금융	1,853.1	106.8	2,050.6	92.9	168.4	2,195.6
		기타	367.2	24.9	405.9	38.2	49.6	433.3
		총자산	12,545.5	934.5	13,858.4	1,397.8	1,511.1	14,798.0
		총부채	1,700.6	813.7	1,800.9	1,165.8	851.8	1,863.2
		순자산	10,478.5	431.0	11,614.6	611.0	765.6	12,441.8

주: 자산빈곤 기준은 순자산이 각 가구의 6개월 최저생계비 미만인 경우이며, 소득빈곤 기준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미만인 경우, 차상위는 최저생계비의 100~120%, 차차상위는 120~150%인 경우임

〈표 23〉 자산·소득빈곤에 따른 자산 및 소득 현황 (절대빈곤 환산액 기준)

(단위: 가구, 만원)

항목구분		가구구분	소득빈곤가구	비빈곤가구	전체
자산·소득 빈곤 가구	가구수		526	662	1,188
	가중치(%)		4.5	9.0	13.5
	소득	근로소득	74.6	897.5	623.7
		사업소득	25.7	169.8	121.9
		자산소득	1.6	3.0	2.6
		사적이전	158.0	158.9	158.6
		공적이전	200.7	133.7	156.0
		경상소득	460.7	1,363.0	1,062.8
	자산	부동산자산	301.1	627.3	518.7
		금융자산	46.3	179.3	135.1
		기타자산	11.3	89.6	63.6
		총자산	358.8	896.2	717.4
		총부채	1,278.5	2,564.6	2,136.7
		순자산	-303.7	-754.3	-604.4
일반 가구	가구수		1,020	4,372	5,392
	가중치(%)		9.2	77.2	86.5
	소득	근로소득	72.8	1,551.6	1,393.8
		사업소득	51.6	479.5	434.1
		자산소득	31.0	106.5	98.4
		사적이전	182.3	132.0	137.3
		공적이전	112.3	128.3	126.6
		경상소득	449.3	2,396.8	2,188.6
	자산	부동산자산	6,729.9	12,471.0	11,857.2
		금융자산	741.6	2,286.8	2,121.6
		기타자산	125.0	449.3	414.7
		총자산	7,596.6	15,207.1	14,393.4
		총부채	637.7	1,751.6	1,632.5
		순자산	6,929.7	12,842.1	12,210.0
전체	가구수		1,546	5,034	6,580
	가중치(%)		13.7	86.3	100.0
	소득	근로소득	73.4	1,483.2	1,289.7
		사업소득	43.1	447.1	391.9
		자산소득	21.4	95.7	85.5
		사적이전	174.4	134.8	140.2
		공적이전	141.2	128.9	130.6
		경상소득	453.0	2,288.7	2,033.8
	자산	부동산자산	4,626.8	11,233.0	10,325.1
		금융자산	514.2	2,066.5	1,853.1
		기타자산	87.8	411.7	367.2
		총자산	5,228.8	13,711.3	12,545.5
		총부채	847.3	1,836.5	1,700.6
		순자산	4,563.3	11,421.0	10,478.5

주: 자산빈곤은 순자산이 6개월간 최저생계비평균인 318.15만원미만, 소득빈곤은 경상소득이 645.7만원 미만인 경우임

4. 상대자산빈곤 가구

상대자산빈곤 가구를 상대소득빈곤 기준을 적용하여 2차원 배열로 나타내면 절대기준을 적용하여 구분할 때 보다 명확한 차이가 드러난다. 〈표 24〉를 살펴보면, 소득 및 자산 어떠한 항목을 상대기준으로 이용하여도 비빈곤가구의 소득과 순자산이 빈곤가구보다 크게 나타나는데, 이는 일반적인 사실에 부합하는 결과이다.

소득빈곤이면서 자산빈곤인 가구의 경우 경상소득은 470.8만원, 순자산이 -294.5만원으로 소득과 자산이 가장 낮으며, 소득빈곤이면서 자산일반가구인 경우는 경상소득이 460.8만원, 순자산이 10,069.5만원이다. 소득을 기준으로 모두 빈곤으로 구분된 가구를 자산 기준으로 재분류하면 두 계층 간 소득은 큰 차이가 없으나 순자산의 평균에는 큰 차이가 존재한다.

〈표 24〉 자산·소득빈곤에 따른 자산 및 소득 현황 (상대빈곤기준)

(단위: 가구, 만원)

항목구분		가구구분	소득빈곤가구	비빈곤가구	전체
자산빈곤 가구	가구수		958	1,458	2,416
	가중치(%)		8.2	21.1	29.3
	소득	근로소득	86.2	1,044.8	775.2
		사업소득	35.7	177.2	137.3
		자산소득	2.5	2.4	2.4
		사적이전	160.3	136.1	142.9
		공적이전	186.5	107.6	129.8
		경상소득	470.8	1,468.0	1,186.8
	자산	부동산자산	652.0	1,021.7	917.5
		금융자산	93.8	281.9	228.8
		기타자산	22.8	135.7	103.9
		총자산	768.6	1,439.3	1,250.2
		총부채	805.2	1,478.6	1,288.7
		순자산	-294.1	352.8	337.7
일반 가구	가구수		689	3,475	4,164
	가중치(%)		6.5	64.2	70.7
	소득	근로소득	70.6	1,646.4	1,502.5
		사업소득	59.9	540.7	497.3
		자산소득	46.8	127.2	119.8
		사적이전	198.4	133.1	139.1
		공적이전	85.9	135.4	130.9
		경상소득	460.8	2,581.5	2,388.0
	자산	부동산자산	9,789.0	14,662.7	14,217.9
		금융자산	1,031.5	2,675.3	2,525.3
		기타자산	174.1	506.5	476.2
		총자산	10,994.7	17,844.5	17,219.4
		총부채	883.3	1,970.2	1,871.0
		순자산	10,069.5	15,137.1	14,674.6
전체	가구수		1,647	4,933	6,580
	가중치(%)		14.7	85.3	100.0
	소득	근로소득	79.3	1,498.1	1,289.7
		사업소득	46.2	451.1	391.9
		자산소득	21.9	96.4	85.5
		사적이전	177.0	133.9	140.2
		공적이전	142.3	128.6	130.6
		경상소득	466.4	2,307.2	2,033.8
	자산	부동산자산	4,662.4	11,301.6	10,325.1
		금융자산	505.4	2,085.5	1,853.1
		기타자산	89.2	415.2	367.2
		총자산	5,257.0	13,802.2	12,545.5
		총부채	839.5	1,849.1	1,700.6
		순자산	4,587.5	11,494.3	10,478.5

주: 자산빈곤은 순자산이 중위값의 40% 미만, 소득빈곤은 경상소득이 중위값의 40% 미만인 경우임

5. 자산빈곤가구의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실태

수급과 비수급가구를 절대자산빈곤의 정의에 따라 구분하여 <표 25>와 같이 2차원 배열로 나타낼 수 있다. 수급의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 계산 시 가구의 소득과 자산의 정보를 모두 이용하기 때문에 수급배제가구의 특성과 소득인정액 계산방법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수급의 기준이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하는 것이므로 실제수급을 받고 있는 경우는 수급가구,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미만인 경우를 수급대상,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상인 경우는 수급비대상으로 정의하였다.

먼저 비수급-비자산빈곤 가구의 소득과 순자산이 그룹 중 가장 많고, 소득은 수급-자산빈곤가구, 그리고 순자산은 비수급-자산빈곤가구가 가장 적다. 이는 빈곤가구보다 비빈곤가구의 소득과 자산이 더 많다는 상식과 부합하는 결과이다. 비수급-자산빈곤가구의 경우 경상소득 1,219.3만원, 순자산 -701.1만원이며, 수급-비자산빈곤은 각각 742.5만원, 2,067.6만원으로 나타났다. 경상소득은 비수급-자산빈곤가구가 더 많고, 순자산은 수급-비자산빈곤이 더 많으며, 이들 그룹 간 소득과 총자산, 순자산의 분포는 <그림 1>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은 비모수 확률밀도 추정법인 kernel밀도를 이용하여 가구의 총자산, 순자산, 경상소득을 나타낸 것이다. 비모수 추정이란 분포의 함수형태를 가정하지 않고 주어진 자료로부터 직접 추정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인 histogram이 전체의 자료를 몇 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추정치가 연속이 되지 못하는 단점을 보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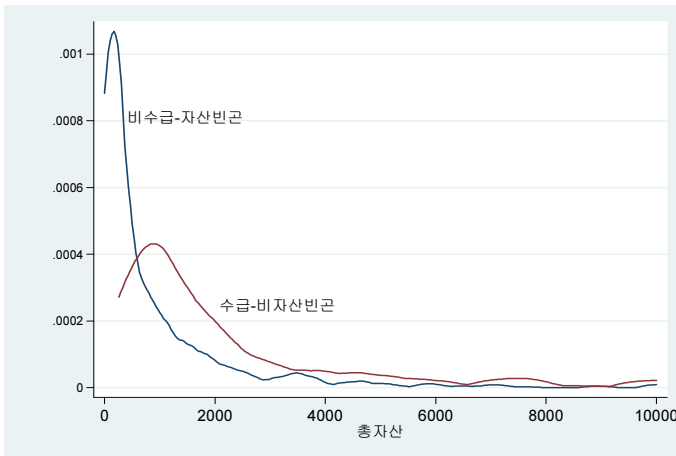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 이용된 kernel 함수는 다음과 같다.

$$K(u) = \begin{cases} \frac{3}{4\sqrt{5}} (1 - 0.2u^2), & |u| \leq \sqrt{5} \\ 0, & \text{otherwise} \end{cases}$$

이는 Epanechnikov kernel 함수라고 부르는데, 모수추정 방법에 비해 변수의 통계적 특성을 잘 파악하여 발생 가능한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확률 밀도 함수로 추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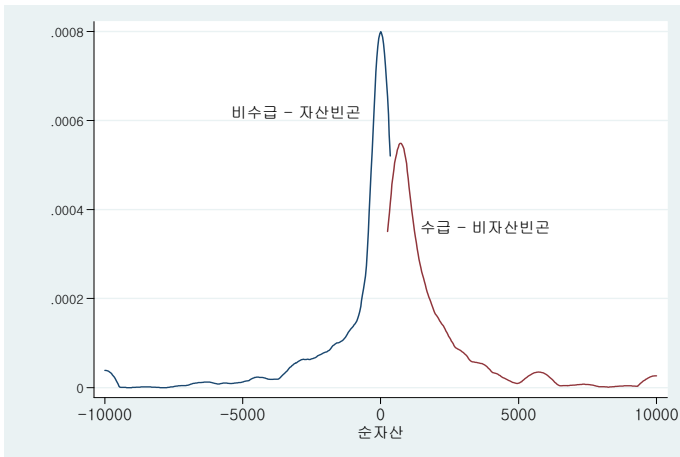
총자산의 경우 0의 근방에서 비수급-자산빈곤가구의 밀도가 높고 경상소득이 낮은 구간에서 수급-비자산빈곤의 밀도가 더 높다. 순자산의 경우는 더욱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는데 비수급-자산빈곤가구가 0의 부근의 밀도가 더 높으며, 분포가 순자산이 음(-)인 구간에 치우쳐져 있다.

[그림 1] 총자산 kernel 밀도 함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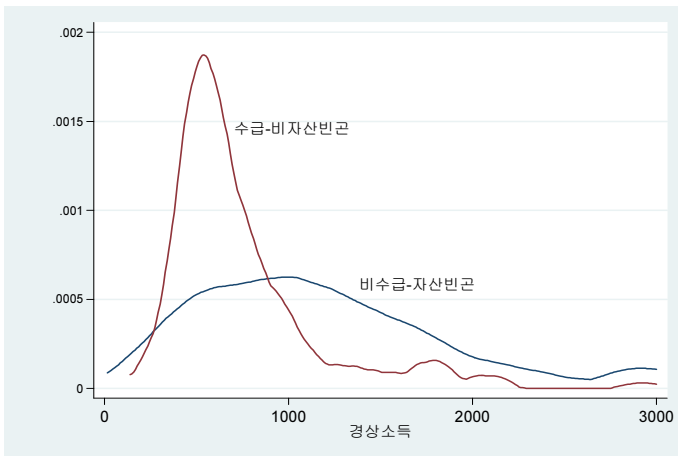
주: 총자산이 1억원 이상인 경우는 1억원으로 대체함

[그림 2] 순자산 kernel 밀도 함수



주: 순자산분포의 양극단 경계값을 -1억원과 1억원으로 설정하고 범위를 벗어난 값은 경계값으로 대체함

[그림 3] 경상소득 kernel 밀도 함수



주: 경상소득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는 3,000만원으로 대체함

〈표 25〉 자산빈곤 및 수급여부에 따른 자산 및 소득 현황

구분		전체	수급			비수급		
			전체	수급 대상	수급 비대상	전체	수급 대상	수급 비대상
자산빈곤 가구	가구(수)	1,163	417	364	53	746	235	511
	가중치(%)	13.3	3.9	3.3	0.7	9.4	2.0	7.4
	소득	근로소득	627.4	171.9	109.9	470.9	819.2	119.8
		사업소득	125.2	35.3	17.6	120.9	163.1	44.6
		자산소득	2.6	0.8	0.5	2.5	3.4	2.5
		사적이전	156.8	115.1	81.5	277.5	174.3	202.9
		공적이전	156.1	385.9	401.9	308.5	59.4	57.7
	자산	경상소득	1,068.1	709.1	611.5	1,180.3	1,219.3	427.6
		부동산	524.6	244.8	226.0	335.8	642.4	490.9
		금융	134.1	35.3	34.3	175.8	46.8	211.0
		기타	64.3	11.5	11.5	86.5	10.3	107.4
		총자산	723.1	291.7	271.9	387.2	904.7	548.0
		총부채	2,174.2	908.3	776.9	1,542.2	2,707.2	2,228.4
		순자산	-621.0	-430.7	-376.2	-693.6	-701.1	-317.2
		순자산	-621.0	-430.7	-376.2	-693.6	-701.1	-317.2
일반 가구	가구(수)	5,417	306	233	73	5,111	317	4,794
	가중치(%)	86.7	2.9	2.1	0.8	83.8	2.7	81.1
	소득	근로소득	1,391.0	196.2	71.6	549.2	1,432.7	126.8
		사업소득	432.7	60.9	21.3	173.4	445.6	56.2
		자산소득	98.1	8.8	3.1	24.9	101.2	2.7
		사적이전	137.7	92.2	74.8	141.5	139.2	181.0
		공적이전	126.7	384.3	409.6	312.6	117.7	60.7
	자산	경상소득	2,184.5	742.5	580.4	1,201.6	2,234.7	425.9
		부동산	11,823.8	2,075.9	1,181.2	4,609.8	12,163.3	1,417.6
		금융	2,116.0	241.7	131.5	553.9	2,181.2	217.4
		기타	413.5	90.3	14.5	304.9	424.8	59.4
		총자산	14,353.3	2,407.9	1,327.2	5,468.7	14,769.4	1,694.4
		총부채	1,628.1	340.2	224.3	668.7	1,673.0	286.9
		순자산	10,484.0	2,067.6	1,102.9	4,799.9	12,527.9	1,407.4
		순자산	10,484.0	2,067.6	1,102.9	4,799.9	12,527.9	1,407.4
전체	가구(수)	6,580	723	597	126	5,857	552	5,305
	가중치(%)	100.0	6.8	5.4	1.4	93.2	4.7	88.4
	소득	근로소득	1,289.7	182.3	94.6	512.4	1,371.1	123.8
		사업소득	391.9	46.3	19.0	148.7	417.3	51.3
		자산소득	85.5	4.2	1.5	14.4	91.4	2.6
		사적이전	140.2	105.4	78.8	205.4	142.8	190.3
		공적이전	130.6	385.2	405.0	310.7	111.8	59.4
	자산	경상소득	2,033.8	723.3	599.1	1,191.6	2,132.9	426.6
		부동산	10,325.1	1,025.2	606.7	2,602.1	11,008.9	1,026.3
		금융	1,853.1	123.3	73.0	312.6	1,980.3	145.4
		기타	367.2	45.1	12.7	166.9	390.9	38.6
		총자산	12,545.5	1,193.6	692.5	3,081.6	13,380.1	1,210.4
		총부채	1,700.6	666.2	556.7	1,079.1	1,776.6	1,106.7
		순자산	10,478.5	634.1	213.3	2,219.4	11,202.3	679.2
		순자산	10,478.5	634.1	213.3	2,219.4	11,202.3	679.2

주: 1) 자산빈곤의 기준은 각 가구의 6개월 최저생계비임

2) 각 항목은 모두 가구균등화된 값임

3) 수급대상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미만, 수급비대상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상인 경우

〈표 25〉는 기초보장급여 수급여부와 자산빈곤에 따른 자산 및 소득 현황을 정리한 것인데, 이는 소득인정액을 구성하는 항목에 해당하므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수급여부와 자산빈곤에 따라 전체 가구를 수급-자산빈곤, 수급-자산비빈곤, 비수급-자산빈곤, 비수급-자산비빈곤 가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중 수급-자산빈곤 가구는 자산빈곤에 속하여 이미 수급을 받고 있으며, 비수급-자산비빈곤 가구는 자산빈곤에 속하지 않으며 수급을 받지 않고 있으므로 이상의 두 계층은 자산빈곤과 수급기준의 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비수급-자산빈곤 가구는 자산빈곤에 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을 받지 못하는 계층이며, 수급-비자산빈곤 가구는 자산빈곤에 속하지 않지만 수급을 받고 있다는 측면에서 수급기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계층이라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두 계층의 경상 소득 항목을 살펴보면 비수급-자산빈곤 가구는 평균 1,219.3만원으로 수급-비자산빈곤 가구의 742.5만원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평가액 역시 비수급-자산빈곤 가구가 평균 1,179.2만원으로 수급-비자산빈곤 가구 389.9만원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 소득평가액이 낮은 가구가 수급대상에 속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두 계층의 순자산은 비수급-자산빈곤 가구가 -701.1만원으로 수급-비자산빈곤 가구의 2,067.6만원 보다 약 2,700만원 가량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비수급-자산빈곤 가구가 461만원, 수급-자산비빈곤 가구가 7,844.5만원으로 나타났다. 두 계층의 순자산 차이는 2,768.7만원, 재산의 환산액의 차이는 약 7,383.5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계층의 순자산 구성, 즉 부채와 총자산을 비교하면, 비수급-자산빈곤 가구의 부채는 2,707.2만원으로 수급-비자산빈곤 가구 340.2만원보다 2,367만원 정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총자산은 비수급-자산빈곤 가구에서는 904.7만원으로 수급-비자산빈곤 2,407.9만원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급대상 선정 기준에서 재산의 반영이 낮기 때문에 두 계층의 부채 및 총자산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현재의 수급기준은 가구의 재산보다 소득에 대부분의 가중치를 두고 있으며, 단기적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현재 소비에 충당할 수 있는 소득을 보전해주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합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현재 소비로 처분할 수 있는 약간의 소득은 존재하지만 재산 자체가 적고 빚이 많은 가구에게는 수급 지원을 해줄 수 없으며, 소비로 처분할 수 있는 재산이 많더라도 현재 소득이 적은 가구에게는 기초생활보장 지원을 하고 있다는 점은 향후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표 26〉 자산·소득빈곤에 따른 소득인정액 산출 항목 현황

		전체	수급전체			비수급 전체	수급대상	수급 비대상
			수급전체	수급대상	수급 비대상			
자산빈곤 가구	소득인정액	1,253.4	334.6	217.4	899.9	1,640.3	368.9	1,987.9
	소득평가액	928.9	334.6	217.4	899.9	1,179.2	368.9	1,400.7
	재산의 소득환산액	324.4	0	0	0	461.0	0	587.1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액	0.6	0	0	0	0.95	0	1.2
	환산대상 일반재산	1.3	0	0	0	1.9	0	2.4
	일반재산가액	561.5	256.0	237.3	346.6	690.1	500.2	741.9
	(-)공제되는 부채액	2,124.7	907.9	776.4	1,542.2	2,637.2	2,228.4	2,748.9
	(-)지역별 재산 기초공제	2,411.5	2,524.4	2,594.8	2,184.6	2,363.9	2,617.3	2,294.7
	금융재산의 소득환산액	0	0	0	0	0	0	0
일반 가구	자동차의 소득환산액	323.7	0	0	0	460.1	0	585.9
	소득인정액	9,987.6	879.7	201.5	2,800.4	10,304.9	390.7	10,640.2
	소득평가액	2,143.0	389.9	193.5	946.3	2,204.1	374.3	2,266.0
	재산의 소득환산액	7,844.5	489.8	8.0	1,854.1	8,100.7	16.4	8,374.1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액	4,341.7	369.7	7.6	1,395.1	4,480.0	12.1	4,631.1
	환산대상 일반재산	8,676.4	738.8	15.3	2,788.0	8,952.9	24.3	9,254.9
	일반재산가액	12,050.7	2,160.7	1,195.1	4,895.4	12,395.1	1475.1	12,764.4
	(-)공제되는 부채액	1,628.1	340.2	224.3	668.7	1,672.9	286.9	1,719.8
	(-)지역별 재산 기초공제	2,151.6	2,522.2	2,689.3	2,049.0	2,138.7	2559.5	2,124.5
전체	금융재산의 소득환산액	1,279.3	66.8	0.4	255.1	1,321.5	4.3	1,366.1
	자동차의 소득환산액	2,223.5	53.2	0	203.8	2,299.1	0	2,376.8
	소득인정액	8,829.1	566.9	211.1	1,907.7	9,436.7	381.5	9,922.8
	소득평가액	1,982.0	358.2	207.9	983.1	2,101.4	372.0	2,194.3
	재산의 소득환산액	6,847.1	208.7	3.2	924.5	7,335.2	9.5	7,728.5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액	3,765.9	157.5	3.1	739.7	4,031.2	7.0	4,247.2
	환산대상 일반재산	7,525.8	314.9	6.1	1,478.3	8,056.0	14.0	8,487.7
	일반재산가액	10,526.8	1,067.8	619.0	2,758.6	11,222.3	1,063.4	11,767.6
	(-)공제되는 부채액	1,693.9	666.0	556.3	1,079.0	1,769.5	1,106.7	1,805.1
전체	(-)지역별 재산 기초공제	2,186.1	2,523.5	2,632.5	2,112.7	2,161.3	2,583.9	2,138.6
	금융재산의 소득환산액	1,109.7	28.5	0.1	135.2	1,189.1	145.3	1,252.8
	자동차의 소득환산액	1,971.5	22.7	0	108.1	2,114.8	0	2,228.3

- 주: 1) 복지패널 내에서 계산할 수 있는 항목으로 소득인정액의 구성항목이 되는 값으로 연할계산하였으며, 반영하지 못하는 항목의 차이로 인해 실제와는 다를 수 있음
- 2) 실제 소득인정액으로 빈곤층을 구분할 때에는 가구원수당 최저생계비 기준이 있어서 조정해줄 필요가 없었으나, 가구원수로 인한 통계량 차이를 줄이기 위해 균등화함
- 3) 소득인정액의 구성항목은 아래와 같음

$$\text{소득인정액} = \text{소득평가액} + \text{재산의 소득환산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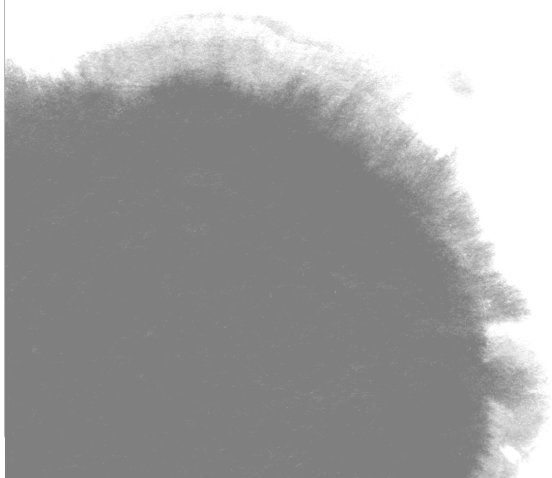
(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항목은 자료에서 이용할 수 없어
일부반영하지 못함

(일반재산-총부채-지역별공제) ×
월 4.17%
+(금융재산-추가금융공제-생활준비
금융제-장기금융저축공제)
× 월 6.26%
+자동차 × 월 100%

03

저소득층의 재산 불평등 요인 분해



제3장 저소득층의 자산 불평등 요인 분해

본 장에서는 저소득계층에 대한 순자산 불평등의 요인 분해를 통해 우리나라 가구 전체와 계층별 불평등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비교하고, 지역·교육별로 세분화하여 저소득층의 불평등도에 대한 정보를 다양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제1 절 분석기법

지니계수로 대표되는 상대적 소득불평등도는 일반적으로 다음 다섯 가지 공리에 기초하고 있다. 이들 공리체계란, 익명성(anonymity), 소득동차성(income homogeneity), 인구동차성(population homogeneity), 이전원칙(transfer principle), 그리고 분해성(decomposability)의 다섯 가지를 말한다. 익명성은 대칭성(symmetry)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사회구성원이 동일할 때 그들의 소득만 바뀌는 경우 소득불평등도에는 변화가 없다는 것이다. 소득동차성은 규모비의존성(scale independence)이라고도 하며 구성원의 소득이 모두 동일한 비율로 증가하거나 감소하더라도 소득불평등도에는 변화가 없음을 뜻한다.³⁾ 인구동차성은 인구비의존성이라고도 하는데, 기존 사회구성원들의 소득분포와 동일한 소득분포를 가지는 구성원들이 복제되어 두 소득분포가 합해지더라도 소득불평등도에는 변화가 없음을 의미한다. 이전

3) 분산이나 표준편차는 규모비의존성의 원칙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또 절대적 지니계수(absolute Gini coefficient) 역시 이 원칙에 위배된다.

원칙은 피구-달톤의 이전원칙(Pigou-Dalton's principle of transfer)이라고도 하는데, 사회 구성원의 전체 평균소득은 변화하지 않고 부자가 가난한 사람에게 소득을 이전한다면(mean preserving income transfer) 사회 전체의 소득불평등은 감소함을 의미한다. 분해성은 전체를 구성하는 일부분 집단의 불평등도가 변하는 경우 전체의 불평등도 또한 같은 방향으로 변화해야 함을 의미한다.

일반화된 엔트로피(generalized entropy) 지수는 불평등도에 관한 다섯 가지의 공리체계를 만족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Cowell, 1995). 이들 일반화된 엔트로피 부류의 지수들은 그룹내(within group) 및 그룹간(between group)간 불평등도로 쉽게 분해되고, 분해된 각 불평등도의 합은 전체 불평등도와 일치한다는 특징이 있다.

소득불평등도(inequality)·빈곤(poverty)·후생(welfare)은 서로 구분되는 개념이기는 하지만 소득불평등도는 빈곤보다는 폭넓은 개념이다. 빈곤기준선 이하의 소득을 가지는 가구(또는 개인)의 비율로 나타나는 빈곤율은 분포의 아래부분에만 관심을 두는 반면 불평등도는 분포의 중간과 윗부분에도 의미를 둔다는 점에서 특히 그러하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후생이라는 개념은 불평등도보다 더 넓은 개념으로 쓰인다. 양자 모두 전체적인 분포를 다룬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지만 불평등도는 분포의 분산에 관심을 두지만 후생은 평균도 동시에 감안하기 때문이다.

제2절 저소득층의 순자산 불평등 요인 분해

저소득층의 순자산 불평등도⁴⁾를 살펴보기 위하여 가계 계층을 빈곤·차상위·차차상위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4) 불평등도 요인분해는 순자산을 가구원수로 조정하여 분석한 결과이며, 균등화시키지 않은 순자산을 이용한 결과와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표 27〉 절대빈곤 계층의 불평등 요인 분해

구분	엔트로피	구성비	$\alpha=2$	절대기여	상대기여
절대빈곤	1543.1007	0.1016	0.0001	0.0194	0.0116
차상위	177.8376	0.0257	0.0005	0.0021	0.0013
차차상위	5.4210	0.0376	0.0037	0.0008	0.0005
일반	1.3086	0.8351	1.4226	1.5546	0.9304
그룹내	-	-	-	1.5769	0.9437
그룹간	-	-	-	0.0941	0.0563
전체	1.6710	1.0000	-	1.6710	1.0000

<표 27>을 살펴보면, 저소득계층과 일반 계층을 구분하는 경우 각 그룹 내의 불평등도가 전체 불평등도에 기여하는 상대적인 비율이 94.4%로 나타나, 그룹간 불평등도의 상대 기여도 5.6%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계층의 불평등도를 살펴보면, 절대빈곤 계층의 불평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며, 일반 계층으로 올라 갈수록 각 계층의 불평등도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의 구성비가 매우 낮고, 전체 가구의 순자산 평균에 대한 저소득층의 순자산 평균의 비율이 매우 낮기 때문에 상대적인 기여도는 1.2%로 낮게 나타났다.

제3절 저소득층의 지역별 불평등 요인 분해

다음으로 가구의 거주 지역별로 순자산 불평등도를 살펴보았다. <표 28>은 전체 가구의 불평등도를 정리한 것으로, 각 지역의 불평등도는 ‘시’에서 1.672, ‘도·농 복합군’에서 1.539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각 지역의 구성비는 ‘시’에서 44.6%, ‘광역시’에서 25.1%, ‘서울’에서 21.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8〉 전체 가구의 지역별 불평등 요인 분해

구분	엔트로피	구성비	$\alpha=2$	절대기여	상대기여
서울	1.3225	0.2115	2.5391	0.7102	0.4250
광역시	1.4508	0.2509	0.4773	0.1738	0.1040
시	1.6717	0.4460	0.8757	0.6529	0.3907
군	1.2801	0.0819	0.5333	0.0559	0.0334
도농복합	1.5390	0.0097	1.6554	0.0248	0.0148
그룹내	-	-	-	1.6175	0.9680
그룹간	-	-	-	0.0535	0.0320
전체	1.6710	1.0000	-	1.6710	1.0000

전체 순자산 불평등도에 대한 상대적인 기여도는 ‘시’에서 39.1%, ‘서울’에서 42.5% 순으로 높게 나타나는데, 특히, ‘서울’ 지역의 순자산 평균은 전체 평균에 비하여 높게 나타나 상대기여도가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표 29〉 전체 가구의 지역권별 불평등 요인 분해

	엔트로피	구성비	$\alpha=2$	절대기여	상대기여
서울	1.3225	0.2116	2.5954	0.7262	0.4706
경기	1.1795	0.2698	0.9511	0.3027	0.1961
경남	1.4777	0.1690	0.7409	0.1850	0.1199
경북	1.2075	0.1014	0.5468	0.0669	0.0434
충남	1.6717	0.0732	0.8354	0.1023	0.0663
충북	1.0937	0.0618	0.4332	0.0293	0.0190
전라·제주	1.7924	0.1132	0.3607	0.0732	0.0474
그룹내	-	-	-	1.4855	0.9627
그룹간	-	-	-	0.0577	0.0374
전체	1.5431	1.0000	-	1.5431	1.0000

복지패널 자료에서는 <표 29>와 같은 지역 구분 변수를 추가로 제공하고 있어 이에 따른 순자산 불평등도를 살펴보았다. 지역에 따른 불평등도는 1.180~1.792수준으로 나타났으며, 각 지역의 순자산 전체 평균에 대한 비율을 살펴보면 ‘서울’ 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은 전체 평균에 미치지 못하여 순자산의 대부분은 ‘서울’ 지역에 집중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순자산이 음수인 가구의 비율은 ‘전라·제주’ 지역이 가장 높으며, 순자산이 9억원 이상인 비율은 ‘서울’ 지역이 가장 높다. 순자산이 음수부터 5,000만원까지의 점유율은 ‘서울’ 지역이 36.9%로 가장 낮고, ‘전라·제주’ 지역이 64.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30>은 각 지역의 순자산 구간별 비율을 나타낸 것으로 각 지역별 순자산의 분포가 대략적으로 어떠한지를 알 수 있다. 순자산이 음수인 비율은 ‘전라·제주’ 지역이 9.3%로 가장 높고 순자산이 5,000만원 미만인 비율 또한 64.7%로 이 지역이 가장 높다. 순자산이 9억원 이상인 비율은 ‘서울’ 지역이 2.6%로 가장 높고 ‘경남’ 1.1%, ‘충북·강원’ 1.0%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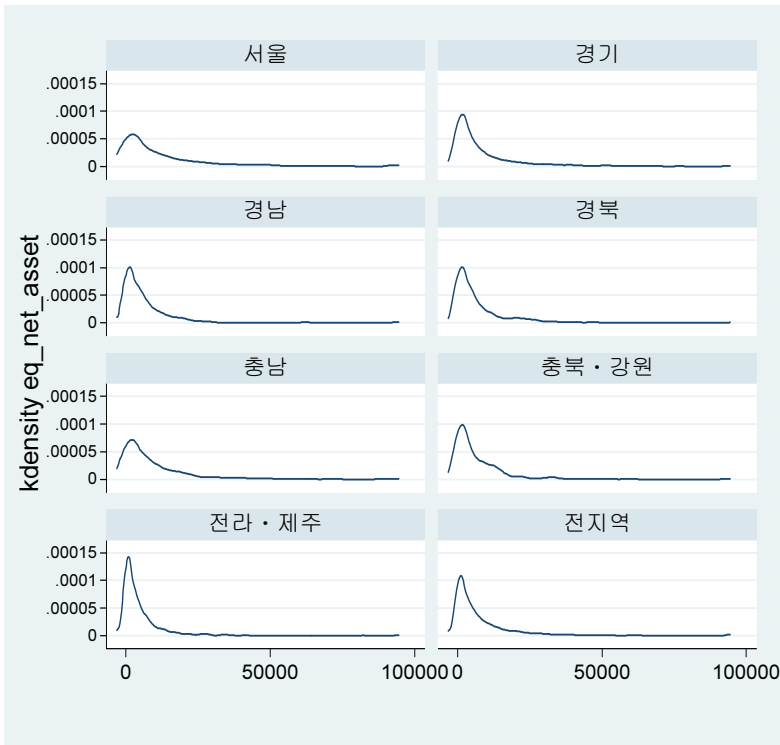
〈표 30〉 각 지역의 순자산 구간별 비율

(단위: 만원, %)

지역	음수	0	0~5,000	5,000~10,000	10,000~20,000	20,000~30,000	30,000~50,000	50,000~70,000	70,000~90,000	90,000 이상	계
서울	5.8	0.8	30.3	16.5	20.3	9.6	9.1	3.6	1.5	2.6	100.0
경기	6.8	1.2	43.1	17.9	15.2	6.4	5.9	2.5	0.6	0.5	100.0
경남	7.0	1.5	40.4	21.7	19.6	6.1	1.4	0.8	0.5	1.1	100.0
경북	6.7	1.3	46.1	22.4	12.6	6.3	3.5	1.5	0.3	0.3	100.0
충남	6.3	1.1	41.3	18.0	20.6	4.4	5.8	3.1	0.3	0.7	100.0
충북·강원	7.0	1.1	46.8	21.9	15.4	3.3	3.1	1.0	0.0	1.0	100.0
전라·제주	9.3	1.8	53.6	17.1	11.4	3.3	2.4	1.1	0.3	0.4	100.0
전체	6.9	1.2	41.5	18.9	16.7	6.3	5.0	2.8	0.7	1.1	100.0

<그림 4>는 각 지역별 순자산의 kernel 밀도 함수이다. 지역의 불평등도가 가장 높은 ‘전라·제주’ 지역은 영(0)의 근방에서 가장 밀도가 높다. 또한, 불평등도가 가장 낮은 ‘서울’ 지역은 영(0)의 근방에서 가장 밀도가 낮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 지역별 순자산의 kernel 밀도 함수



다음으로는 저소득층의 지역별 불평등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표 31>에서 각 지역별 불평등도를 비교하면 모든 지역에서 저소득층의 불평등도가 일반가구를 대상으로 분석하였을 때 보다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지역에 상관없이 저소득층 내에서의 불평등 상태가 일반 가구 보다 높다는 점을 의미한다.

〈표 31〉 저소득층의 지역별 불평등 요인 분해

구분		엔트로피	구성비	$\alpha=2$	절대기여	상대기여
빈곤	서울	6.7406	0.0223	0.2333	0.0351	0.0210
	광역시	1.3562	0.0372	0.0915	0.0046	0.0028
	시	1.6021	0.0611	0.2112	0.0207	0.0124
	군	1.2372	0.0245	0.1017	0.0031	0.0018
	도농복합	3.3510	0.0019	1.0408	0.0068	0.0041
일반	서울	1.1725	0.1891	2.9745	0.6596	0.3947
	광역시	1.3489	0.2137	0.5753	0.1658	0.0992
	시	1.5855	0.3849	1.0228	0.6242	0.3736
	군	1.0584	0.0573	0.8212	0.0498	0.0298
	도농복합	1.2564	0.0078	1.8316	0.0179	0.0107
그룹내		-	-	-	1.5877	0.9501
그룹간		-	-	-	0.0833	0.0499
전체		1.6710	1.0000	-	1.6710	1.0000

특히, ‘서울’ 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의 불평등도는 6.741로 가장 불평등도가 높은 그룹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른 지역이 동일지역 내의 계층 간 불평등도의 차이가 크지 않다는 점과 다르게, ‘서울’ 지역은 계층 간 불평등도의 차이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 저소득층 내에서도 상대적인 자산 격차는 매우 크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전체 순자산 평균에 대한 각 그룹의 비율을 살펴보면, 저소득층은 모든 지역에서 전체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반 계층에서는 ‘서울’, ‘시’, ‘도·농 복합군’은 전체 평균을 상회하여 전체 불평등도의 약 77%를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광역시’와 ‘군’ 지역은 일반 계층이라 할지라도 전체 순자산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는 7개 권역별 저소득층의 불평등도를 나타낸 것이다. ‘서울’ 지역 내의 저소득층 순자산 불평등도는 가장 높게 나타나 앞선 결과와 일치하고 있으며, 저소득층에서는 ‘경기’지역이 2.387, 일반 계층에서는 ‘충남’지역이 1.6221로 불평등도가 높은 그룹으로 나타났다.

〈표 32〉 저소득층의 지역권별 불평등 요인 분해

구분		엔트로피	구성비	$\alpha=2$	절대기여	상대기여
빈곤	서울	6.7406	0.0224	0.2385	0.0359	0.0233
	경기	2.3873	0.0304	0.2830	0.0205	0.0133
	경남	1.4539	0.0227	0.0766	0.0025	0.0016
	경북	1.2956	0.0205	0.1738	0.0046	0.0030
	충남	0.8179	0.0120	0.2435	0.0024	0.0015
	충북	0.9599	0.0095	0.1445	0.0013	0.0009
	전라·제주	1.6638	0.0297	0.0948	0.0047	0.0030
일반	서울	1.1725	0.1892	3.0404	0.6745	0.4371
	경기	1.0944	0.2394	1.0639	0.2788	0.1807
	경남	1.3446	0.1463	0.9049	0.1780	0.1154
	경북	1.1178	0.0808	0.6747	0.0610	0.0395
	충남	1.6221	0.0613	0.9926	0.0986	0.0639
	충북	1.0479	0.0523	0.5024	0.0275	0.0179
	전라·제주	1.6107	0.0835	0.4963	0.0668	0.0433
그룹내		-	-	-	1.4572	0.9443
그룹간		-	-	-	0.0860	0.0558
전체		1.5431	1.0000	-	1.5431	1.0000

대부분의 지역에서 저소득층의 불평등도가 일반 계층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저소득층의 평균값은 전체 순자산의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남’, ‘경북’, ‘전라·제주’는 저소득층과 일반 계층의 불평등도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충남’, ‘충북’ 지역은 다른 지역과 달리 일반 계층의 불평등도가 저소득층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충남’ 지역의 일반 계층의 불평등도가 높게 나타나고 저소득층의 불평등도가 낮게 나타난다는 점으로부터 이 지역의 저소득층의 순자산 분포는 집중되어 있는 형태이고 일반 계층의 순자산의 분포는 다른 지역에 비해 넓게 퍼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4절 저소득층의 교육 수준별 불평등 요인분해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교육수준별 불평등 요인 분해를 살펴보면, <표 33>과 같다. 가구주의 교육수준에 따른 불평등도는 ‘중졸’이 1.662, ‘고졸’이 1.401, ‘대졸’이 1.206으로 나타났으며, 구성비는 각각 약 29%에서 34% 사이로 비교적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원졸’의 구성비는 3.6%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낮지만 불평등도는 1.313으로 ‘대졸’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33〉 전체 가구의 교육수준별 불평등 요인 분해

구분	엔트로피	구성비	$\alpha=2$	절대기여	상대기여
중졸	1.6624	0.3261	0.4878	0.2645	0.1583
고졸	1.4005	0.3396	0.6784	0.3226	0.1931
대졸	1.2059	0.2945	1.7055	0.6056	0.3624
대학원졸	1.3132	0.0363	5.4645	0.2607	0.1560
그룹내	-	-	-	1.4534	0.8698
그룹간	-	-	-	0.1203	0.0720
전체	1.6710	1.0000	-	1.6710	1.0000

교육수준별로 상대기여도를 살펴보면 ‘대졸’에서 36.2%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 다른 그룹은 약 15%~19% 정도를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순자산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그룹은 ‘중졸’과 ‘고졸’로 나타났으며, ‘대졸’과 ‘대학원졸’의 순자산 평균은 전체 순자산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학원졸’ 그룹은 낮은 구성비에도 불구하고 상대기여도가 15.6%로 높게 나타나는 것은 해당 그룹의 순자산 평균이 전체 순자산 평균보다 약 2.5배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순자산이 고학력 계층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표 34>는 가구주의 교육수준별 저소득층의 불평등도를 나타낸 것이다. 저소득층과 일반 계층간의 불평등도를 비교해 보면, 대부분 저소득층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체적으로 ‘중졸’에서 1.827, ‘고졸’에서 9.872,

‘대졸’에서 1.575로 나타나, 저소득층의 ‘고졸’ 그룹에서 불평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4〉 저소득층의 교육수준별 불평등 요인 분해

구분		엔트로피	구성비	$\alpha=2$	절대기여	상대기여
빈 곤	중졸	1.8270	0.1102	0.1302	0.0262	0.0157
	고졸	9.8718	0.0237	0.1070	0.0251	0.0150
	대졸	1.5747	0.0126	0.8852	0.0176	0.0105
	대학원졸	0.2747	0.0005	1.0463	0.0001	0.0001
일 반	중졸	1.3973	0.2159	0.7583	0.2287	0.1369
	고졸	1.2575	0.3158	0.7413	0.2944	0.1762
	대졸	1.1914	0.2818	1.7484	0.5871	0.3514
	대학원졸	1.3080	0.0358	5.5500	0.2601	0.1557
그룹내		-	-	-	1.4394	0.8614
그룹간		-	-	-	0.1343	0.0804
전체		1.6710	1.0000	-	1.6710	1.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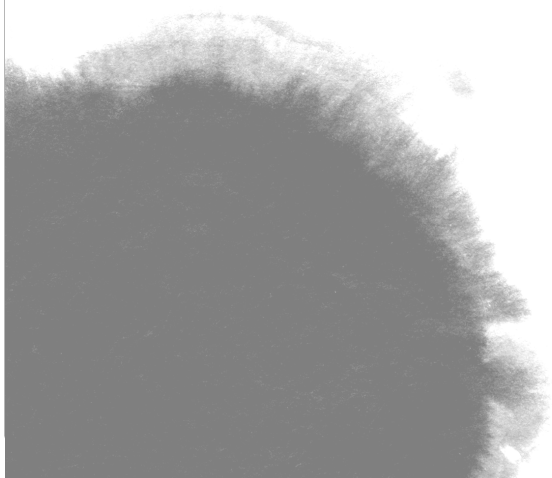
저소득층의 ‘대졸’⁵⁾은 전체 순자산 평균보다 높은 평균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저소득층을 소득을 기준으로 구분한 후에 순자산으로 각 계층의 불평등도를 계산함으로써 순자산이 높더라도 소득이 낮은 사람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졸’과 ‘고졸’은 저소득층과 일반 계층에서 모두 순자산의 평균이 전체 순자산의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졸’ 그룹은 저소득층에서는 전체 순자산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일반 계층에서는 상회하고 있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순자산 점유율이 높고 계층내의 순자산 불평등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5) 저소득층의 ‘대학원졸’의 경우는 표본내의 관찰치가 4 case에 불과하여 대표성을 갖기 어렵다.

04

저소득층의 재산 보유 결정요인



제4장 저소득층의 자산 보유결정요인

제1 절 저소득층의 자산 보유 결정모형

저소득층의 자산 보유에 대한 결정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극단치의 영향을 가장 잘 통제할 수 있는 비모수적 기법인 중위회귀(median regression) 분석법을 이용하였다. 일반적인 최소자승법(ordinary least square)이 조건부 평균을 이용하여 모수를 추정하는 방식과는 달리, 중위회귀분석은 조건부 분위함수(conditional quantile function)를 이용하여 분석한다.

중위회귀분석은 장점은 첫째, 조건부 평균이 아닌 조건부 분위수를 이용하기 때문에 종속변수의 조건부 분포 전체를 분석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둘째, 잔차항의 기대값이 영(0)이 아닌 절대 잔차(absolute residual)를 이용하므로 추정된 모수는 종속변수의 극단치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

저소득층 자산보유 결정모형의 종속변수는 순자산보유액, 독립변수로는 세대주 나이, 금융자산 보유 여부(더미), 경상소득, 가구원수, 전문직 여부(더미), 자영업 여부(더미), 주택보유 여부(더미), 도시거주 여부(더미)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표 35〉 가구 계층별 기초통계량

(단위: 세, 만원)

구분	변수	관찰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전체 가구	가구주연령	6,580	52.2	14.920	16	98
	금융자산보유	6,580	0.8	0.358	0	1
	경상소득	6,580	3,526.8	3,268.042	0	100,900
	가구원수	6,580	2.9	1.280	1	8
	전문·관리직	6,580	0.1	0.288	0	1
	자영업	6,580	0.2	0.369	0	1
	자가보유	6,580	0.5	0.498	0	1
	대도시거주	6,580	0.5	0.499	0	1
	순자산	6,580	10,844.9	19,827.2	-176,777	332,918
구분	변수	관찰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빈곤 가구	가구주연령	1,647	66.8	13.834	16	98
	금융자산보유	1,647	0.7	0.468	0	1
	경상소득	1,647	604.8	282.812	0	1,595
	가구원수	1,647	1.9	1.084	1	6
	전문·관리직	1,647	0.1	0.341	0	1
	자영업	1,647	0.2	0.358	0	1
	자가보유	1,647	0.4	0.498	0	1
	대도시거주	1,647	0.4	0.491	0	1
	순자산	1,647	4,417.5	10,666.9	-176,776	312,116
구분	변수	관찰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일반 가구	가구주연령	4,933	49.7	13.606	19	97
	금융자산보유	4,933	0.9	0.327	0	1
	경상소득	4,933	4,030.7	3,283.606	668	100,900
	가구원수	4,933	3.1	1.229	1	8
	전문·관리직	4,933	0.1	0.277	0	1
	자영업	4,933	0.2	0.370	0	1
	자가보유	4,933	0.6	0.496	0	1
	대도시거주	4,933	0.5	0.499	0	1
	순자산	4,933	11,953.2	20,807.7	-113,195	332,918

주: 빈곤 가구의 기준은 경상소득 중위값의 40%를 이용함

제2절 저소득층의 자산 보유 결정요인

먼저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가구주 연령에 따라 순자산은 체감적으로 늘어남을 알 수 있다. 금융자산을 보유한 가구는

그렇지 않은 가구에 비하여 약 1,119만원 정도 순자산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소득이 많은 가구가 더 많은 순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순자산 규모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가구원수가 한명 증가하면 순자산은 223만원 만큼 줄어들고 있다.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은 876만원 정도 더 많은 순자산을 가지고 있으며, 자영업자 가구는 다른 가구에 비하여 1,144만원 정도 더 많은 순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가 주택을 보유한 가구는 그렇지 않은 가구에 비하여 4,780만원, 그리고 대도시에 거주하는 사람은 비도시거주자에 비하여 888만원 정도 순자산이 더 많이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가구를 대상으로 별도로 식을 추정해 본 결과도 전체가구를 대상으로 한 결과와 상당히 유사하였다. 그러나 빈곤가구만을 대상으로 결정요인을 분석해 보면 몇 가지 특이한 점이 나타난다. 우선 가구주 연령 (및 연령의 제곱) 변수가 통계적 유의성을 갖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는 순자산빈곤이 특정 가구주 연령대에 집중되어 있지 않고 전 연령대에 걸쳐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특정 사회경제적 집단을 주된 정책대상으로 하는 빈곤완화정책으로는 전체적인 빈곤완화 효과가 즉시에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자산을 보유한 가구는 그렇지 않은 가구보다 순자산이 808만원 정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경상소득은 순자산 규모를 결정하는데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저소득가구의 소득수준은 매우 낮기 때문에 기초생활에 필요한 지출을 충당하기도 어려워 소득이 자산형성으로까지는 이어지지 못하는 것이 주된 이유일 것이다.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은 가구원수의 부호가 모두 음(-)의 부호를 가지며, 전체가구에서만 유의적인 음(-)의 관계를 가지고, 빈곤가구와 일반가구는 5% 유의수준에서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이다. 종속변수가 가구원수로 균등화된 순자산임을 감안할 때 전체 표본에서는 순자산이 가

가구원수의 제공근보다 적게 증가하는 것을 의미하며, 자산빈곤가구와 자산비빈곤가구로 각각 구분한 경우에는 가구원수의 변화가 순자산 규모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은 가구원수가 순자산 축적이 가구원수의 제공근에 비례함을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비교를 위하여 균등화 시키지 않은 순자산을 이용하여 동일한 분석을 수행하면 일반가구의 경우와는 달리 자산빈곤가구의 경우에 있어서만 가구원수 증가가 소득 창출을 통하여 자산 축적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결국 저소득층의 가구원이 증가함에 따라 추가적인 소득이 발생하고 궁극적으로 자산의 축적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의미하므로 이 계층의 자산축적을 위해서는 이들 계층의 고용창출이 특히 중요함을 다시 일깨워 주고 있다. 그러므로 정부는 산업정책을 수립할 때 최대한 저소득계층의 고용을 창출할 수 있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빈곤계층에는 전문직종사자나 자영업자 회소하기 때문에 이들 변수가 통계적 유의성을 갖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주택보유 가구는 그렇지 않은 가구에 비하여 4,682만원, 도시거주 가구는 708만원 정도 순자산을 더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은 저소득가구의 자산형성을 위해 주택마련이 가장 큰 문제이며, 또 임대주택의 경우 주거비에 대한 부담이 생활수준의 하락과 자산형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저소득층의 주택마련을 위한 현실성 있는 지원 대책이나 임대주택 거주자에 대한 임대료 부담을 줄여나갈 수 있는 대책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자산형성이 가능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특히, 대도시에 거주하는 저소득가구에 대한 주거대책을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이들의 배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뿐만 아니라, 가계의 재무구조가 건전해지기 위해서는 구성원 스스로가 주체적으로 재무상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소득의 창출, 가계 소비지출, 저축, 대출 등의 경제행위를 계획성 있게 꾸려나가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단순한 보조금의 지급 외에도 저소득층을 위한 재무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표 36〉 가구 계층별 순자산 결정요인

변수	전체 가구	빈곤 가구	일반 가구
가구주 연령	185.28	-27.87	55.21
(연속)	(0.000)	(0.307)	(0.288)
가구주 연령 ²	-0.94	0.21	0.58
(연속)	(0.006)	(0.332)	(0.226)
금융자산 보유	1,119.17	807.65	1,451.44
(dummy)	(0.000)	(0.000)	(0.000)
경상소득	3.66	-7.98	4.04
(연속)	(0.000)	(0.000)	(0.000)
경상소득 ²	-3.9e-5	9.367e-3	-6.8e-5
(연속)	(0.000)	(0.000)	(0.000)
가구원수	-223.34	-36.81	-147.97
(이산)	(0.001)	(0.491)	(0.079)
전문·관리직 ¹⁾	875.59	240.47	1,389.12
(dummy)	(0.002)	(0.213)	(0.000)
자영업	1,143.96	104.16	1,545.74
(dummy)	(0.000)	(0.567)	(0.000)
자가 보유	4,780.46	4,682.00	4,658.26
(dummy)	(0.000)	(0.000)	(0.000)
대도시 ²⁾ 거주	887.81	707.95	858.92
(dummy)	(0.000)	(0.000)	(0.000)
상수항	-10,573.41	1,973.88	-9,222.91
	(0.000)	(0.024)	(0.000)
관찰치	6,580	1,647	4,933
Pseudo R ²	0.2087	0.1625	0.20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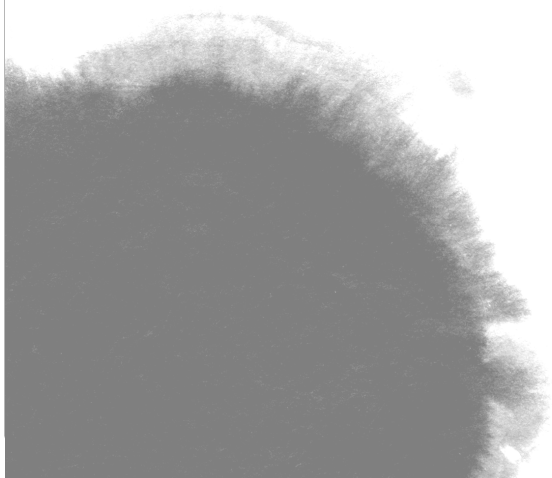
주: 1) 전문·관리직은 복지패널 2차 자료에 나타나는 ‘의회의원·고위임직원 및 관리자’와 ‘과학·교육·법률 등의 전문가’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의미함

2) 대도시 거주는 ‘서울’, ‘광역시’ 거주로 분류함

3) 괄호 안은 p-값을 의미함

05

요약 및 시사점



제5장 요약 및 시사점

지난 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국제금융 위기가 급속하게 진전됨에 따라 소득 및 자산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데, 이는 다시 심각한 사회문제로 연결될 수 있다. 외환위기 이후 빈곤층, 근로빈곤층 (working poor), 그리고 차상위계층 (near poor)의 자산실태를 동태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통하여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연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기초분석 결과가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기존의 자산관련 연구 중에서 총자산을 분석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총부채가 포함되어 있어서 경제위기 시에 합당한 분석척도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순자산($\text{순자산} = \text{총자산} - \text{총부채}$)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기초보장제도 도입의 사회적 불평등 완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순자산을 중심으로 저소득층의 자산보유 현황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저소득층의 자산보유 실태 분석을 통하여 불평등 완화를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얻어진 몇 가지 중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소득을 기준으로 빈곤으로 분류되는 가구 내에서도 자산빈곤을 기준으로 다시 분류하면, 자산빈곤과 비빈곤 가구들 간의 소득과 순자산은 상당한 차이가 있었으며, 비빈곤가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소득빈곤 기준 뿐 아니라, 자산빈곤의 개념을 적용한 빈곤의 연구는 저소득 가구의 자산형성을 위한 정책의 수립에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가계 자산 포트폴리오의 가장 큰 특징은 전 생애주기에 걸쳐

주택자산의 규모가 압도적으로 크다는 점을 들 수 있으며, 생애주기에 걸쳐 은행저축이 금융자산 중에서 가장 비중이 높았다. 가계부채 포트폴리오의 특성을 살펴보면 부채가 있는 가구가 전체의 약 절반에 이르며, 많은 경우 주거용 부동산구입 시점에 은행권 대출이 급증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할부 및 외상잔액도 상당한 규모에 이르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젊은 가구주들이 유가증권을 많이 보유하고 있었다.

가계순자산 규모를 가구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대에 최저 규모에서 60대 초반에 정점에 달하였다가 그 이후 점차로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순자산이 가구주가 은퇴하는 시점까지 점진적으로 증가하다가 은퇴시점 이후부터는 감소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생애주기-항상소득가설에서 추론되는 자산축적행태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전체 가구를 빈곤계층·차상위·차차상위·차차상위 이상 계층으로 구분한 다음 순자산불평등의 요인분해를 한 결과에 의하면 빈곤계층 내의 순자산 불평등이 가장 높고, 차상위계층이 그 다음을 이었다. 그러나 이들 계층은 계층 내 순자산불평등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체가구에 대한 가구비중이 미미하여 전체가구에 대한 불평등 기여도는 오히려 차차상위계층 이상의 계층보다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회 전체의 순자산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빈곤계층에 대하여 시행하고 있는 자산형성 지원 정책의 불평등 완화 효과는 기대한 수준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순자산보유액의 결정요인 분석을 위한 종속변수는 순자산보유액, 독립변수로써는 세대주 나이, 금융자산 보유 여부(더미), 경상소득, 가구원수, 전문직 여부(더미), 자영업 여부(더미), 주택보유 여부(더미), 도시거주 여부(더미)를 이용하였다. 분석기법으로는 극단치의 영향을 가장 잘 통제할 수 있는 비모수적 기법인 중위회귀(median regression) 분석법을 이용하였다.

먼저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가구주 연령에 따라 순자산은 체감적으로 늘어남을 알 수 있다. 금융자산을 보유한 가구는 그렇지 않은 가구에 비하여 약 1,119만원 정도 순자산이 더 많았다. 경상

소득이 많은 가구가 더 많은 순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순자산 규모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가구원수가 한명 증가하면 순자산은 223만원 만큼 낮아지고 있었다.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은 876만원 정도 더 많은 순자산을 가지고 있으며, 자영업자 가구는 다른 가구에 비하여 1,144만원 정도 더 많은 순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가주택을 보유한 가구는 그렇지 않은 가구에 비하여 4,780만원, 그리고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은 비도시거주자에 비하여 888만원 정도 순자산이 더 많이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가구를 대상으로 별도로 식을 추정해 본 결과도 전체가구를 대상으로 한 결과와 상당히 유사하였다. 그러나 빈곤가구만을 대상으로 결정요인을 분석해 보면 몇 가지 특이한 점이 나타난다. 우선 가구주 연령 (및 연령의 제곱) 변수가 통계적 유의성을 갖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는 순자산빈곤이 특정 가구주 연령대에 집중되어 있지 않고 전 연령대에 걸쳐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특정 사회경제적 집단을 주된 정책대상으로 하는 빈곤완화정책으로는 전체적인 빈곤완화 효과가 즉시에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자산을 보유한 가구는 그렇지 않은 가구보다 순자산이 808만원 정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경상소득은 순자산 규모를 결정하는데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저소득가구의 소득수준은 매우 낮기 때문에 기초생활에 필요한 지출을 충당하기도 어려워 소득이 자산형성으로까지 이어지지 못하는 것이 주된 이유일 것이다.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은 가구원수의 부호가 모두 음(-)의 부호를 가지며, 전체가구에서만 유의적인 음(-)의 관계를 가지고, 빈곤가구와 일반가구는 5% 유의수준에서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이다. 종속변수가 가구원수로 균등화된 순자산임을 감안할 때 전체 표본에서는 순자산이 가구원수의 제곱근보다 적게 증가하는 것을 의미하며, 자산빈곤가구와 자산비빈곤가구로 각각 구분한 경우에는 가구원수의 변화가 순자산 규모에 영

향을 주지 못하는 것은 가구원수가 순자산 축적이 가구원수의 제공근에 비례함을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비교를 위하여 균등화 시키지 않은 순자산을 이용하여 동일한 분석을 수행하면 일반가구의 경우와는 달리 자산빈곤가구의 경우에 있어서만 가구원수 증가가 소득 창출을 통하여 자산 축적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결국 저소득층의 가구원이 증가함에 따라 추가적인 소득이 발생하고 궁극적으로 자산의 축적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의미하므로 이 계층의 자산축적을 위해서는 이들 계층의 고용창출이 특히 중요함을 다시 일깨워 주고 있다. 그러므로 정부는 산업정책을 수립할 때 최대한 저소득계층의 고용을 창출할 수 있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빈곤계층에는 전문직종사자나 자영업자 회소하기 때문에 이들 변수가 통계적 유의성을 갖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주택보유 가구는 그렇지 않은 가구에 비하여 4,682만원, 도시거주 가구는 708만원 정도 순자산을 더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은 저소득가구의 자산형성을 위해 주택마련이 가장 큰 문제이며, 또 임대주택의 경우 주거비에 대한 부담이 생활수준의 하락과 자산형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저소득층의 주택마련을 위한 현실성 있는 지원 대책이나 임대주택 거주자에 대한 임대료 부담을 줄여나갈 수 있는 대책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자산형성이 가능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특히, 대도시에 거주하는 저소득가구에 대한 주거대책을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이들의 배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가계의 재무구조가 건전해지기 위해서는 구성원 스스로가 주체적으로 재무상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소득의 창출, 가계 소비지출, 저축, 대출 등의 경제행위를 계획성 있게 꾸려나가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단순한 보조금의 지급 외에도 저소득층을 위한 재무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현재 선별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아동발달계좌 사업의 경우, 보편적 형태의 제도 설계를 통하여 모든 아동들에게 공평하게 자산형성 기회를 제공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편주의적인 제도설계는 대상자 선정과 관련된 행정 비용의 감소를 가져올 것이며, 모든 아동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형평성을 달성하기 위한 사회투자의 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각종 자산형성이나 소득지원 정책은 서로 보완적인 기능을 살릴 수 있도록 설계되고 시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저소득층 아동의 경우 사회적 배제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보육·건강·교육과 같은 통합적인 사회서비스뿐만 아니라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각종 소득보장제도, 그리고 아동발달계좌 등을 유기적으로 설계하여 시행할 때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사회투자의 효과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출산율 하락과 평균수명 연장으로 급속한 인구고령화를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대책은 미흡한 실정이다. 고령자의 안정적인 주거생활과 노후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공적보증 역모기지 제도의 도입은 자가 보유 고령자의 노후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런데 기존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65세 이상인 가구주의 70% 정도가 자가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가구주의 성별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구체적으로 여성 노인가구의 자가 보유율은 남성 가구의 자가 보유율의 절반에 미달하고 있었다. 이는 여성 노인 가구의 경우 주택자산을 활용하는 소득보장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자가를 보유하고 있는 노인가구 중에서도 67% 정도는 보유주택의 가치가 1억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역모기지제도를 통한 실질소득의 향상은 기대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기존 연구에 의하면 가구주 연령이 75세 이상이고 보유한 주택자산이 1억원을 넘는 경우에 한하여 노인빈곤이 감소한다고 한다(김안나, 2007). 따라서 1억원 이하의 주택자산을 보유한 고령자의 노후대책은 여전히 기대하기 어려우며, 소득기준은 충족하지만 자산기준으로 인하여 수급대상에서 제외된 노인가구에 대한 최저수준의 생계 보장을 위한 대책은 절실하다고 본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최종적인 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비수급 빈곤층과 잠재적 빈곤층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이 가능하게 되어야 한다. 그런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는 대체로 엄격한 부양의무자 기준과 과도한 재산의 소득환산을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부양의무자 기준과 재산기준에 대한 지속적인 재검토를 통하여 절대빈곤 상태에 있는 비수급 빈곤층을 제도 안으로 포함시키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영세 자영업자들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대안의 하나로 Feldstein and Altman (1998)이 제안한 바 있는 실업보험저축계좌제도의 도입 가능성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실업보험저축계좌제도는 개인이 의무적으로 실업보험저축계좌에 근로소득의 일정부분을 저축하도록 한 다음 실업이 발생하면 그 계좌에서 급여를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정부가 영세 자영업자들에 대하여 일정 부분 대응자금을 지원한다면 외환 위기 이후 급증한 생계형 영세 자영업자중 근로빈곤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 수단의 역할을 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자산빈곤 가구의 경우 소득이 자산의 형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질 좋은 일자리(decent job) 창출, 취약계층의 근로능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직업훈련의 지원이 필요하다. 40대 이하 자산빈곤층에게는 취업의지를 고양시키고 직업능력을 향상시키는 기회를 제공하고, 50대 이상의 중·고령자에게는 고용안정성을 가지고 있는 취업기회의 확대 위주로 정책적 배려를 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김대일, 「불평등도 지표로서의 소득과 소비의 비교」, 『노동경제논집』, 30권 3호, 2007, pp. 77-102.
- 김미곤·여유진 외, 「2006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대학교사회복지연구소, 2007년 1월.
- 김미곤·여유진 외, 「2007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대학교사회복지연구소, 2007년 12월.
- 김안나, 「한국 근로빈곤층의 특성과 결정요인 분석」, 『사회복지정책』, 20권 2007, pp. 145-168.
- 김진영, 「대우패널 자료를 통해 본 1990년대 가계의 자산구성 변화」, 『재정논집』, 제17권 제1호, 2002, pp. 47-74.
- 남상섭·신범철·안병룡, 「경제위기 이후 소득분배와 불평등의 요인분해」, 한국창업정보학회 『창업정보학회지』, 제8권 제2호, 2005, pp. 159-183.
- 남상호, 「우리나라 가구의 자산분포 현황과 시사점」,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재정학회 발표 논문, 2007년 2월.
<http://user.chol.com/~johnnam/pubfin/distribution.htm>
- 남상호, 「家計資産 分布와 不平等度の 要因別 分解: 労働패널 資料를 中心으로」, 제9차 노동패널학술대회 발표논문, 2008. 1.
<http://user.chol.com/~johnnam/pubfin/distribution.htm>
- 남상호·권순현, 「우리나라의 자산분포: 한국 가계자산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한국재정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 2007년 10월.

- 남상호·권순현, 「우리나라 중·고령자 가구의 자산분포 현황과 빈곤 분석: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KReIS) 자료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제28권 제2호, 2008년 12월, pp. 3-32.
- 신현구·부가청·반정호, 「고령자패널조사 소개」, 『노동리뷰』, 한국노동연구원, 2007.
- 여유진·김미곤·김태완·양시현·최현수, 「빈곤과 불평등의 동향 및 요인 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2005-11, 2005.
- 유경준, 「소득불평등 개념과 실태」, 『노동경제논집』 30권 3호, 2007. 12, pp. 103-138.
- 이정우·이성림, 「한국 가계자산 불평등의 최근 추이」,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발표논문, 2001. 2.
- 이정우·이성림, 「한국의 부의 불평등 추계」, 『경제발전연구』, 한국경제발전학회, 제7권 제1호, 2001a, pp. 1-28.
- 이정우·이성림, 「한국 가계자산 불평등의 최근 추이」, 『노동정책연구』, 한국노동연구원, 제1권 제1호, 2001b, pp. 39-51.
- 정진호·최강식, 「근로자 가구소득 불평등의 요인별 분해」, 『경제학연구』, 제49집 제3호, 2001, pp. 39-64.
- 최현수 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자산조사체계 효율화 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2007.
- 통계청, 「2006 가계자산조사 보고서」, 2007년 3월.
- Alessi, R., A. Lusardi, and T. Aldershof, "Income and Wealth over the Life Cycle: Evidence from Panel Data," *Review of Income and Wealth*, Series 43, No. 1, March 1997, pp. 1-32.
- Ando, A., and F. Modigliani, "The Life-Cycle Hypothesis of Saving: Aggregate Implications and Tests," *American Economic Review*, 1963.
- Atkinson, A., "The Distribution of Wealth and the Individual Life

- Cycle," *Oxford Economic Papers*, Vol. 23, 1971, pp. 239-254.
- Barro, Robert J., "Are Government Bonds are Net Wealth?,"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82, No. 6, 1974, pp. 1095-1117.
- Beach, C.M., and R. Davidson, "Distribution-free Statistical Inference with Lorenz Curves and Income Shares," *Review of Economic Studies*, Vol. 50, No. 4, 1983, pp. 723-735.
- Burbidge, J.B., and A.L. Robb, "Evidence on Wealth-Age Profiles in Canadian Cross-Section Data, *Canadian Journal of Economics*, Vol. 18, No. 4, 1985, pp. 854-875.
- Caner, Asena, and Edward N. Wolff, "Asset Poverty in the United States, 1984-99: Evidence from the Panel Study of Income Dynamics," *Review of Income and Wealth*, Vol. 50, Issue 4, Dec. 2004, pp. 493-518.
- Chawla, R.K., "The Distribution of Wealth in Canada and the US 1984," *mimeo*, 1989.
- Cowell, Frank A., *Measuring Inequality*, Third edition, Prentice-Hall/Harvester-Wheatsheaf, Hemel Hempstead, 2000.
- Davies, J.B., "On the Size Distribution of Wealth in Canada," *Review of Income and Wealth*, Vol. 25, Issue 3, Sep. 1979, pp. 237-259.
- _____, "The Distribution of Wealth in Canada," in E. Wolff (ed.), *Research on Economic Inequality: Studies in the Distribution of Household Wealth*, Vol. 4, Greenwich, CT, JAI Press, 1993, pp. 159-180.
- Davies, J.B., and Anthony B. Shorrocks, "The Distribution of Wealth," *Handbook of Income Distribution*, Vol. 1, 1999, pp. 605-675.
- Deaton, A., and C. Paxton, "Inter-temporal Choice and Inequality,"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Working paper No. 4328, 1993.

Feldstein, Martin, and Daniel Altman, "Unemployment Insurance Savings Accounts," in James M. Poterba (ed.), *Tax Policy and the Economy*, Volume 21, NBER, 2007.

Greenwood, D., "An Estimation of U.S. Family Wealth and Its Distribution from Microdata, 1973," *Review of Income and Wealth*, Vol. 29, Issue 1, Mar. 1983, pp. 23-44.

Haveman, Robert and Edward N. Wolff, "Who Are the Asset Poor? Levels, Trends, and Composition, 1983-1998," Institute for Research on Poverty Discussion Paper No.1227-01, 2001.

Juster, F. Thomas, and Kathleen A. Kuester, "Differences in the Measurement of Wealth, Wealth Inequality and Wealth Composition Obtained from Alternative U.S. Wealth Surveys," *Review of Income and Wealth*, Vol. 37, Issue 1, Mar. 1991, pp. 33-62.

King, M.A., and D.L. Dicks-Mireaux, "Asset Holdings and the Life Cycle," *Economic Journal*, Vol. 92, No. 366, June 1982, pp. 247-267. <http://www.jstor.org/stable/pdfplus/2232439.pdf>

Keister, Lisa A., and Stephanie Moller, "Wealth inequality in the United States," *Annual Review of Sociology*, Vol. 26, 2000, pp. 63-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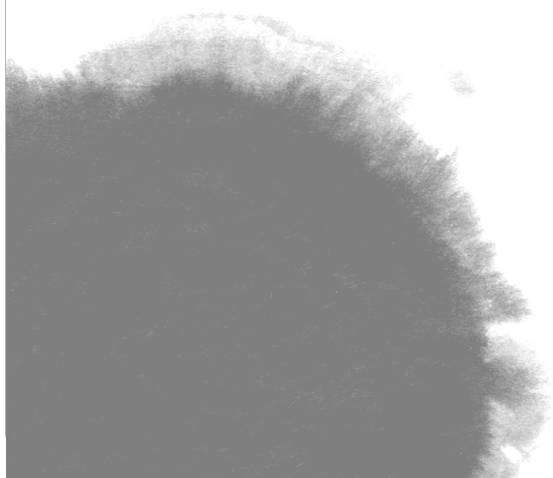
Leipziger, D. M., D. Dollar, A. F. Shorrocks and S. Y. Song, *The Distribution of Income and Wealth in Korea*, The World Bank, Washington DC, 1992.

Lerman, Robert I., and Shlomo Yitzhaki, "Income Inequality Effects by Income Source: A New Approach and Applications to the United States,"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Vol. 67,

- No. 1, Feb. 1985, pp. 151-156.
- Menchik, P.L., and N.A. Jianakoplos, "Wealth Inequality as Cohort Age," in E.N. Wolff (ed.), *Research on Economic Inequality: Studies in the Distribution of Household Wealth*, Vol. 4, Greenwich, CT, JAI Press, 1993, pp. 81-98.
- Mincer, J., *Schooling, Experience, and Earnings*, Columbia University Press for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New York, NY, 1974.
- Modigliani, F., and R.E. Brumberg, "Utility Analysis and the Consumption Function: An Interpretation of Cross Section Data," in K.K. Kurihara (ed.), *Post-Keynesian Economics*, New Brunswick, NJ, Rutgers University Press, 1954, pp. 388-436.
- Oja, Gail, "The Distribution of Wealth in Canada," *Review of Income and Wealth*, vol. 29, Issue 2, Jun. 1983, pp. 161-173.
- Podoluk, J. R., "Measurement of the Distribution of Wealth in Canada," *Review of Income and Wealth*, Vol. 20, Issue 2, Jun. 1974, pp. 203-216.
- Projector, D.S., and G.S. Weiss, "Survey of Financial Characteristics of Consumers," Federal Reserve Board, Washington, D.C., 1966.
- Pudney, S., "Income and Wealth Inequality and the Life Cycle: A Non-parametric Analysis for China," *Journal of Applied Econometrics*, Vol. 8, 1993, pp. 249-276.
- Shorrocks, Anthony F., "Inequality decomposition by factor components," *Econometrica*, Vol. 50, No. 1, 1982, pp. 193-212.
- Siddiq, F., and C.M. Beach, "Characterizing Life-Cycle Wealth Distributions Using Statistical Inference and Dominance Criteria," *Empirical Economics*, Vol. 20, 1995, pp. 551-575.

- Tuttle, M.H., and J. Gauger, "Wealth and the Distribution of Income: Permanent and Transitory Effects," *Review of Income and Wealth*, Series 52, No. 4, December 2006, pp. 493-508.
- Wolff, Edward N., "Wealth Holdings and Poverty Status in the U.S.," *Review of Income and Wealth*, Vol. 36, Issue 2, Jun. 1990, pp. 143-165.
- Wolfson, Michael C., "Wealth and the Distribution of Income, Canada 1969-70," *Review of Income and Wealth*, Vol. 25, Issue 2, Jun. 1979, pp. 129-140.

부록





〈표 A1〉 가구주 연령별 자산빈곤

구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	계
전체	가구(수)	2	180	998	1,220	995	1,243	1,259	400	17	6,314
	가중치(%)	[0.0]	[3.3]	[21.8]	[24.4]	[17.4]	[16.9]	[12.7]	[3.4]	[0.1]	[100.0]
빈곤	가구(수)	1	35	106	229	156	155	268	124	6	1,080
	가중치(%)	(39.5)	(15.5)	(9.0)	(13.4)	(10.9)	(8.7)	(18.2)	(26.5)	(30.6)	(12.4)
일만	가구(수)	1	145	892	991	839	1,088	991	276	11	5,234
	가중치(%)	(60.5)	(84.5)	(91.0)	(86.6)	(89.1)	(91.3)	(81.8)	(73.5)	(69.4)	(87.6)

주: []내 수치는 행 구성비이고 ()내의 수치는 열 구성비임

〈표 A2〉 가구주 연령별 자산빈곤 현황

구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
가구(수)		1	35	106	229	156	155	268	124	6
가중치(%)		0.0	0.5	2.0	3.3	1.9	1.5	2.3	0.9	0.0
소득	근로	420	1,177.3	1,162.9	931.4	817.8	262.2	99.2	18.2	0
	사업	0	190.2	158.7	167.7	100.5	67.5	44.0	20.2	0
	재산	0	0	0.4	1.5	4.9	1.3	8.7	0.2	0
	공적이전	590	57.4	127.2	140.0	230.9	242.9	252.4	165.0	187.6
	사적이전	66	206.1	98.3	111.3	105.3	252.6	296.3	340.3	316.8
	경상	1,076	1,631.0	1,547.6	1,351.9	1,258.2	826.5	700.7	544.1	504.5
자산	부동산	0	440.7	464.2	700.9	578.0	799.3	260.6	159.0	0
	금융	0	127.6	169.4	224.4	177.4	60.4	70.3	59.5	69.0
	기타	0	154.9	120.0	67.7	83.3	56.1	23.4	4.8	0
	총자산	0	723.1	753.5	993.0	838.7	915.8	354.3	223.3	69.0
	총부채	0	810.4	1,399.6	2,487.1	2,562.3	2,211.6	946.4	212.1	0
	순자산	0	-87.3	-535.5	-965.4	-1,013	-563.1	-343.1	11.2	69.0

주: 가중치는 절대자산빈곤 가구 중 비율임

〈표 A3〉 가구주 교육수준별 자산빈곤

구분		무학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무응답	계
전체	가구(수)	1,183	1,199	748	1,780	1,260	132	12	6,314
	가중치(%)	[10.0]	[14.1]	[11.1]	[32.8]	[28.4]	[3.3]	[0.3]	100.0
빈곤	가구(수)	351	211	133	266	109	10	0	1,080
	가중치(%)	(26.9)	(15.0)	(14.9)	(12.2)	(6.3)	(3.8)	(0.0)	(12.4)
영빈	가구(수)	832	988	615	1,514	1,151	122	12	5,234
	가중치(%)	(73.1)	(85.0)	(85.1)	(87.8)	(93.7)	(96.2)	(100.0)	(87.6)

주: 1) 수료 및 졸업인 경우의 학력기준임

2) 대학은 전문대학과 대학이며, 대학원은 석사·박사임

3) 전체 중 무응답은 12 case가 있는데, 빈곤가구에서는 무응답이 존재하지 않음

〈표 A4〉 가구주 교육수준별 자산빈곤 현황

		무학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가구(수)		351	211	133	266	109	10
가중치(%)		2.7	2.1	1.7	4.0	1.8	0.1
소득	근로	126.3	393.3	606.8	989.6	1,032.4	1,003.2
	사업	27.6	37.8	116.1	186.1	136.5	245.7
	재산	1.3	0.1	4.2	3.8	6.5	0.2
	공적이전	190.1	243.2	189.8	150.3	177.9	141.4
	사적이전	276.2	182.7	139.3	128.4	196.0	133.4
	경상	621.5	856.7	1,056.3	1,458.3	1,549.4	1,524.0
자산	부동산	149.0	274.4	436.8	578.8	1,336.2	355.5
	금융	64.6	76.6	59.9	210.3	270.8	127.9
	기타	15.5	26.5	57.4	106.1	116.4	70.0
	총자산	229.1	377.5	554.0	895.1	1,723.4	553.5
	총부채	604.5	1,457.3	1,206.7	2,370.6	3,037.9	1,450.0
	순자산	-131.1	-528.4	-590.8	-899.8	-909.5	-896.5

〈표 A5〉 지역별 자산빈곤

구분		서울	경기	경남	경북	충남	충북 강원	전라 제주	계
전체	가구(수)	1,110	1,351	1,093	832	511	420	997	6,314
	가중치(%)	[20.9]	[26.9]	[16.0]	[10.8]	[7.2]	[6.4]	[11.9]	[100.0]
빈곤	가구(수)	141	201	198	162	80	75	223	1,080
	가중치(%)	(9.1)	(11.4)	(11.8)	(13.7)	(13.7)	(16.0)	(17.0)	(12.4)
일반	가구(수)	969	1,150	895	670	431	345	774	5,234
	가중치(%)	(90.9)	(88.6)	(88.2)	(86.3)	(86.3)	(84.0)	(83.0)	(87.6)

〈표 A6〉 지역별 자산빈곤 현황

		서울	경기	경남	경북	충남	충북·강원	전라·제주
가구(수)		141	201	198	162	80	75	223
가중치(%)		1.9	3.1	1.9	1.5	1.0	1.0	2.0
소득	근로	752.3	901.0	574.2	421.0	546.4	751.1	438.8
	사업	151.8	115.1	93.4	65.6	76.4	116.4	126.5
	재산	4.1	2.9	4.4	0.6	0	10.5	0.3
	공적이전	166.8	148.0	227.3	194.7	184.3	217.0	190.0
	사적이전	150.9	132.5	213.6	223.7	177.7	216.0	206.2
	경상	1,226.0	1,299.6	1,112.0	905.5	984.8	1,310.9	961.8
자산	부동산	687.1	700.3	476.7	212.0	418.3	498.6	412.0
	금융	123.6	238.7	116.6	54.2	136.1	126.5	119.8
	기타	51.6	92.8	47.3	73.3	45.7	91.8	56.7
	총자산	862.0	1,031.9	640.6	339.4	600.1	717.0	596.5
	총부채	1,986.1	2,398.6	1,719.0	854.9	1,774.7	1,123.1	1,593.9
	순자산	-712.2	-782.2	-778.7	-375.1	-532.7	-391.8	-529.1

〈표 A7〉 지역권별 자산빈곤

	구분	서울	광역시	시	군	도농복합군	계
전체	가구(수)	1,110	1,605	2,007	1,384	208	6,314
	가중치(%)	[20.9]	[24.6]	[44.5]	[9.0]	[1.0]	[100.0]
빈곤	가구(수)	141	321	317	268	33	1,080
	가중치(%)	(9.1)	(14.3)	(11.9)	(16.6)	(14.6)	(12.4)
일반	가구(수)	969	1,284	1,690	1,116	175	5,234
	가중치(%)	(90.9)	(85.7)	(88.1)	(83.4)	(85.4)	(87.6)

〈표 A8〉 지역권별 자산빈곤 현황

		서울	광역시	시	군	도농복합군
가구(수)		141	321	317	268	33
가중치(%)		1.9	3.5	5.3	1.5	0.1
소득	근로	752.3	652.2	710.3	310.2	950.4
	사업	151.8	105.7	100.1	113.7	22.8
	재산	4.1	2.8	2.2	1.8	33.7
	공적이전	166.8	221.5	167.9	181.3	117.0
	사적이전	150.9	170.7	183.0	225.9	300.4
	경상	1,226.0	1,153.1	1,163.5	832.3	1,424.4
자산	부동산	687.1	608.4	464.0	336.4	203.0
	금융	123.6	113.3	179.0	103.7	249.1
	기타	51.6	74.8	62.8	83.6	98.0
	총자산	862.0	796.5	705.8	523.7	550.2
	총부채	1,986.1	1,665.1	1,956.1	1,070.5	1,117.5
	순자산	-712.2	-608.6	-679.7	-407.0	-464.1

〈표 A9〉 가구원수별 자산빈곤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계
전체	가구(수)	1,437	1,888	1,174	1,316	399	81	18	1	6,314
	가중치(%)	[16.5]	[24.1]	[21.3]	[28.9]	[7.5]	[1.4]	[0.3]	[0.0]	[100.0]
빈곤	가구(수)	431	269	159	144	72	2	3	0	1,080
	가중치(%)	(24.7)	(11.5)	(10.4)	(7.3)	(15.0)	(3.4)	(13.2)	(0.0)	(12.4)
영빈	가구(수)	1,006	1,619	1,015	1,172	327	79	15	1	5,234
	가중치(%)	(75.3)	(88.5)	(89.6)	(92.7)	(85.0)	(96.6)	(86.8)	(100.0)	(87.6)

〈표 A10〉 가구원수별 자산빈곤 현황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가구(수)		431	269	159	144	72	2	3
가중치(%)		4.1	2.8	2.2	2.1	1.1	0.0	0.0
소득	근로	328.1	600.5	741.9	1,071.2	1,000.5	1,035.3	744.8
	사업	88.5	63.8	189.6	133.1	113.9	0	0
	재산	3.0	6.8	0.6	0.3	3.9	0	0
	공적이전	172.8	236.3	172.4	149.8	187.5	14.8	267.1
	사적이전	282.5	194.4	142.1	69.8	73.5	86.4	101.2
	경상	875.0	1,101.2	1,246.7	1,424.3	1,379.3	1,136.6	1,113.1
자산	부동산	180.8	611.0	695.2	812.0	678.5	61.8	76.0
	금융	78.3	121.2	112.5	258.7	283.8	63.0	67.7
	기타	32.5	73.2	95.7	86.1	88.3	54.9	93.8
	총자산	291.6	805.4	903.4	1,156.8	1,050.6	179.7	237.5
	총부채	1,071.7	2,010.4	1,969.4	2,367.6	2,219.4	0	203.8
	순자산	-444.1	-662.6	-602.3	-842.5	-921.1	179.7	33.8

〈표 A11〉 가구주 경제활동 상태별 자산빈곤

구분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고용주	자영업자	실업자	비경제 활동인구	계
전 체	가구(수)	1,730	348	534	186	1,414	170	1,932	6,314
	가중치(%)	[39.1]	[5.8]	[8.0]	[4.2]	[17.2]	[2.8]	[22.9]	[100.0]
빈 곤	가구(수)	136	96	158	2	128	42	518	1,080
	가중치(%)	(5.9)	(24.5)	(25.6)	(1.0)	(7.1)	(18.6)	(21.1)	(12.4)
일 반	가구(수)	1,594	252	376	184	1,286	128	1,414	5,234
	가중치(%)	(94.1)	(75.5)	(74.4)	(99.0)	(92.9)	(81.4)	(78.9)	(87.6)

주: 1) 자활근로 및 공공근로의 경우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서 실시하는 자활근로 또는 공공근로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이며 이들의 경우 임시직으로 포함시킴
 2) 무급가족종사자의 경우 자기 가구에서 경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에서 무급으로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 자이며 자영업자로 포함시킴

〈표 A12〉 가구주 경제활동 상태별 자산빈곤 현황

구분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고용주	자영업자	실업자	비경제 활동인구
가구(수)		136	96	158	2	128	42	518
가중치(%)		2.3	1.4	2.0	0.0	1.2	1.1	4.8
소 속	근로	1,630.1	992.5	935.9	0	144.8	529.4	120.9
	사업	34.2	77.1	15.5	2,017.1	794.6	61.0	12.8
	재산	2.6	0.1	0.5	0	1.7	0	5.8
	공적이전	64.4	162.9	124.2	4.3	123.2	202.6	287.3
	사적이전	91.5	132.0	102.7	14.4	125.6	158.0	289.3
	경상	1,822.7	1,364.7	1,177.4	2,035.8	1,189.9	951.0	716.1
자 산	부동산	816.6	663.6	506.0	33.3	639.2	609.3	309.5
	금융	310.6	115.0	179.4	128.4	173.9	54.9	59.2
	기타	119.3	92.4	45.6	236.5	150.0	66.8	22.2
	총자산	1,246.5	871.1	731.0	398.2	963.2	731.0	390.9
	총부채	2,420.2	2,494.6	1,675.3	1,529.1	2,006.3	1,904.8	1,191.8
	순자산	-735.3	-701.0	-651.3	-1,130.9	-940.9	-1,045.4	-419.1

〈표 A13〉 가구주 직종별 자산빈곤

구분		전문직	준전문직	사무직 서비스직	농림어업	기능직	단순노무	무응답	계
전 체	가구(수)	251	285	1,169	811	913	783	2,102	6,314
	가중치(%)	[6.4]	[6.6]	[24.3]	[6.4]	[18.6]	[12.0]	[25.7]	[100.0]
빈 곤	가구(수)	13	22	146	65	101	173	560	1,080
	가중치(%)	(3.0)	(7.1)	(9.0)	(6.0)	(9.4)	(16.8)	(20.8)	(12.4)
일 반	가구(수)	238	263	1,023	746	812	610	1,542	5,234
	가중치(%)	(97.0)	(92.9)	(91.0)	(94.0)	(90.6)	(83.2)	(79.2)	(87.6)

〈표 A14〉 가구주 직종별 자산빈곤 현황

구분		전문직	준전문직	사무직 서비스직	농림어업	기능직	단순노무	무응답
가구(수)		13	22	146	65	101	173	560
가중치(%)		0.2	0.5	2.2	0.4	1.8	2.0	5.4
소 속	근로	1,760.4	1,070.2	1,124.4	165.0	1,307.5	779.6	161.2
	사업	144.3	193.6	200.8	372.1	218.9	92.2	17.5
	재산	2.9	2.0	0.9	2.8	2.5	0.1	5.2
	공적이전	23.8	157.0	123.2	148.9	70.3	125.2	279.0
	사적이전	165.0	145.6	119.1	188.1	70.3	100.7	276.4
	경상	2,096.4	1,568.4	1,568.4	877.0	1,669.6	1,096.7	739.3
자 산	부동산	783.3	198.7	1,006.1	563.7	666.9	392.9	339.0
	금융	240.6	170.7	288.6	163.0	250.2	98.9	58.7
	기타	48.2	117.2	119.6	194.8	106.1	51.6	26.6
	총자산	1,072.0	486.6	1,414.1	921.5	1,023.2	543.5	424.4
	총부채	1,720.5	1,200.2	2,922.6	1,609.6	2,498.6	1,346.5	1,262.1
	순자산	-490.2	-713.5	-838.0	-573.3	-929.1	-538.5	-480.9

〈표 A15〉 자산·소득빈곤에 따른 자산 및 소득 현황

(단위: 가구, 만원)

가구구분 항목구분		절대자산 빈곤		상대자산 빈곤	절대소득 빈곤		상대소득 빈곤
기준선		각 가구의 6개월간 최저생계비	6개월간최 저생계비 평균값 (337만원)	순자산 중위값의 40%(순자산 2,288만원)	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 미만	경상소득 653.6만원	경상소득 중위값의 40%미만 (728.15만원)
가구수		1,080	1,121	2,338	1,018	1,263	1,554
가중치(%)		12.4%	12.7%	29.4%	9.5%	11.9%	14.8%
소득	근로소득	654.9	641.8	827.5	97.6	68.3	85.0
	사업소득	110.4	109.6	140.6	25.4	34.1	41.6
	자산소득	3.0	2.9	3.8	1.9	19.5	21.8
	사적이전	181.1	186.6	171.2	147.0	200.4	208.8
	공적이전	184.0	183.3	153.2	290.4	144.1	153.8
	경상소득	1,133.3	1,124.1	1,296.1	562.4	466.4	511.0
자산	부동산자산	521.0	511.0	985.9	773.9	5,228.7	5,111.4
	금융자산	143.5	143.6	267.7	119.3	505.5	498.9
	기타자산	67.4	66.6	113.6	26.8	102.0	107.3
	총자산	731.9	721.3	1,367.1	920.0	5,836.3	5,717.6
	총부채	1,760.8	1,719.2	1,095.9	629.8	815.9	802.6
	순자산	-628.9	-607.3	439.5	475.4	5,094.4	4,993.9

주: 1) 자산과 소득항목은 모두 가구균등화된 값임
2) 순자산의 특이항은 하위 1%값, 상위1%값으로 각각 대체함

〈표 A16〉 자산·소득빈곤에 따른 자산 및 소득 현황 (절대빈곤 기준)

(단위: 가구, 만원)

가구구분		빈곤	비빈곤(일반)				전체	
			차상위	차차상위	차차상위 이상	비빈곤 전체		
항목구분								
자·빈곤 가구	가구수	519	97	120	344	561	1,080	
	가중치(%)	4.7%	1.0%	1.5%	5.2%	7.7%	12.4%	
	소득	근로소득	112.6	390.9	476.1	1,240.3	988.3	654.9
		사업소득	19.9	74.4	110.4	198.2	166.0	110.4
		자산소득	0.5	2.1	2.3	5.7	4.6	3.0
		사적이전	145.1	222.3	270.6	181.1	203.3	181.1
		공적이전	313.4	149.0	84.3	102.0	104.5	184.0
		경상소득	591.4	838.8	943.6	1,726.5	1,466.3	1,133.3
	자산	부동산자산	178.6	282.2	629.2	842.4	731.5	521.0
		금융자산	44.1	58.0	70.8	268.6	204.5	143.5
		기타자산	17.7	43.9	18.0	130.0	97.9	67.4
		총자산	240.3	384.2	718.0	1,241.0	1,033.9	731.9
		총부채	994.5	1,025.9	1,764.3	2,583.1	2,231.7	1,760.8
		순자산	-382.0	-446.5	-626.9	-884.8	-780.7	-628.9
일반 가구	가구수	499	118	164	4,452	4,734	5,233	
	가중치(%)	4.7%	1.3%	1.9%	79.7%	82.9%	87.6%	
	소득	근로소득	82.8	229.5	440.7	1,618.3	1,570.4	1,489.8
		사업소득	30.9	94.5	112.3	501.7	486.7	462.0
		자산소득	3.3	2.0	6.0	118.5	114.2	108.2
		사적이전	148.9	252.1	228.4	162.0	164.9	164.0
		공적이전	267.7	137.0	85.2	133.1	132.0	139.4
		경상소득	533.6	715.1	872.7	2,533.3	2,467.9	2,363.0
	자산	부동산자산	1,363.8	1,845.9	1,866.1	13,661.4	13,213.5	12,571.4
		금융자산	193.8	226.7	265.5	2,267.5	2,190.9	2,082.7
		기타자산	35.9	73.8	68.4	553.7	535.3	508.3
		총자산	1,593.5	2,146.3	2,200.0	16,482.5	15,939.8	15,162.4
		총부채	268.5	512.7	624.8	1,849.0	1,800.9	1,717.8
		순자산	1,325.0	1,633.6	1,575.2	14,025.0	13,553.5	12,890.9
전체	가구수	1,018	215	284	4,796	5,295	6,313	
	가중치(%)	9.45%	2.23%	3.33%	85.0%	90.5%	100.0%	
	소득	근로소득	97.6	299.5	456.1	1,595.0	1,521.2	1,386.6
		사업소득	25.4	85.8	111.5	483.0	459.5	418.5
		자산소득	1.9	2.0	4.4	111.5	104.9	95.2
		사적이전	147.0	239.2	246.8	163.2	168.1	166.1
		공적이전	290.4	142.2	84.8	131.1	129.7	144.9
		경상소득	562.4	768.7	903.6	2,483.5	2,383.1	2,211.0
	자산	부동산자산	773.9	1,168.4	1,327.7	12,870.6	12,157.8	11,081.5
		금융자산	119.3	153.6	180.7	2,144.2	2,022.9	1,842.9
		기타자산	26.8	60.8	46.5	527.5	498.3	453.8
		총자산	920.0	1,382.8	1,554.9	15,542.3	14,679.0	13,378.1
		총부채	629.8	735.0	1,120.8	1,894.3	1,837.3	1,723.1
		순자산	475.3	732.3	616.6	13,105.3	12,341.1	11,219.2

주: 자산빈곤의 기준은 순자산이 각 가구의 6개월 최저생계비 미만인 경우이며, 소득빈곤의 기준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미만인 경우임

〈표 A17〉 자산·소득빈곤에 따른 자산 및 소득 현황 (절대빈곤 환산액 기준)

(단위: 가구, 만원)

항목구분		가구구분	소득빈곤가구	일반	전체
자산빈곤가구	가구수		425	696	1,121
	가중치(%)		3.5%	9.1%	12.7%
	소득	근로소득	55.4	866.8	641.8
		사업소득	26.2	141.6	109.6
		자산소득	0.9	3.7	2.9
		사적이전	189.4	185.5	186.6
		공적이전	202.2	176.1	183.3
		경상소득	474.1	1,373.7	1,124.1
	자산	부동산자산	113.7	663.6	511.0
		금융자산	45.8	181.2	143.6
		기타자산	23.5	83.2	66.6
		총자산	182.9	928.1	721.3
		총부채	727.3	2,100.2	1,719.2
		순자산	-293.7	-727.7	-607.3
일반	가구수		838	4,354	5,192
	가중치(%)		8.4%	79.0%	87.3%
	소득	근로소득	73.7	1,645.3	1,494.5
		사업소득	37.4	508.5	463.3
		자산소득	27.3	117.2	108.5
		사적이전	205.0	158.7	163.2
		공적이전	119.8	141.4	139.3
		경상소득	463.1	2,570.8	2,368.6
	자산	부동산자산	7,373.6	13,169.8	12,613.7
		금융자산	698.3	2,236.8	2,089.2
		기타자산	134.9	549.7	509.9
		총자산	8,206.8	15,956.3	15,212.8
		총부채	853.1	1,816.1	1,723.7
		순자산	7,353.8	13,525.7	12,933.6
전체	가구수		1,263	5,050	6,313
	가중치(%)		11.9%	88.1%	100.0%
	소득	근로소득	68.3	1,564.5	1,386.6
		사업소득	34.1	470.4	418.5
		자산소득	19.5	105.4	95.2
		사적이전	200.4	161.5	166.1
		공적이전	144.1	145.0	144.9
		경상소득	466.4	2,446.5	2,211.0
	자산	부동산자산	5,228.7	11,871.5	11,081.5
		금융자산	505.5	2,023.4	1,842.9
		기타자산	102.0	501.2	453.8
		총자산	5,836.3	14,396.1	13,378.1
		총부채	815.9	1,845.6	1,723.1
		순자산	5,094.4	12,046.0	11,219.2

주: 자산빈곤은 순자산이 최저생계비평균인 337만원기준, 소득빈곤은 경상소득이 653.6만원 미만인 경우임

〈표 A18〉 자산·소득빈곤에 따른 자산 및 소득 현황 (상대빈곤 기준)

(단위: 가구, 만원)

항목구분		가구구분	소득빈곤가구	비자산빈곤	전체
자산빈곤 가구	가구수		921	1,417	2,338
	가중치(%)		8.2%	21.2%	29.4%
	소득	근로소득	86.5	1,114.7	827.5
		사업소득	26.9	184.7	140.6
		자산소득	1.8	4.5	3.8
		사적이전	188.2	164.5	171.2
		공적이전	210.4	131.0	153.2
		경상소득	513.8	1,599.4	1,296.1
	자산	부동산자산	650.7	1,115.8	985.9
		금융자산	106.6	330.2	267.7
		기타자산	27.9	146.8	113.6
		총자산	785.3	1,592.7	1,367.1
		총부채	572.6	1,298.8	1,095.9
		순자산	354.7	472.3	439.5
일반	가구수		634	3,341	3,975
	가중치(%)		6.6%	64.0%	70.6%
	소득	근로소득	83.1	1,777.1	1,619.4
		사업소득	60.0	582.9	534.2
		자산소득	46.9	142.1	133.2
		사적이전	234.4	156.8	164.1
		공적이전	83.0	147.5	141.5
		경상소득	507.4	2,805.9	2,591.9
	자산	부동산자산	10,685.2	15,757.2	15,285.0
		금융자산	989.0	2,653.8	2,498.8
		기타자산	206.4	635.3	595.4
		총자산	11,880.6	19,046.3	18,379.2
		총부채	1,089.8	2,076.1	1,984.3
		순자산	10,790.7	16,212.4	15,707.6
전체	가구수		1,555	4,758	6,313
	가중치(%)		14.8%	85.2%	100.0%
	소득	근로소득	85.0	1,612.4	1,386.6
		사업소득	41.6	483.9	418.5
		자산소득	21.8	107.9	95.2
		사적이전	208.8	158.7	166.1
		공적이전	153.8	143.4	144.9
		경상소득	511.0	2,506.0	2,211.0
	자산	부동산자산	5,111.4	12,117.5	11,081.5
		금융자산	498.9	2,076.2	1,842.9
		기타자산	107.3	513.9	453.8
		총자산	5,717.6	14,707.5	13,378.1
		총부채	802.6	1,882.9	1,723.1
		순자산	4,993.9	12,299.5	11,219.2

주: 자산빈곤은 순자산이 총위값의 40% 이하, 소득빈곤은 경상소득이 총위값의 40%이하인 경우임

〈표 A19〉 자산빈곤 및 수급여부에 따른 자산 및 소득 현황

구분		전체	수급			비수급		
			전체	수급 대상	수급 비대상	전체	수급 대상	수급 비대상
자산빈곤 가구	가구(수)	1,080	391	325	66	689	194	495
	가중치(%)	12.4	3.8	3.1	0.7	8.5	1.6	6.9
	소득	근로소득	654.9	236.1	101.8	770.2	842.5	132.4
		사업소득	110.4	21.1	12.7	54.6	150.4	33.2
		자산소득	3.0	0.3	0.3	0	4.2	0.7
		사적이전	181.1	106.2	89.9	170.7	214.7	206.9
		공적이전	184.0	420.8	455.7	282.3	77.8	49.6
		경상소득	1,133.3	784.3	660.5	1,274.8	1,289.8	463.2
	자산	부동산	521.0	270.6	206.7	523.5	633.3	126.3
		금융	143.5	53.5	42.7	96.2	183.8	46.5
		기타	67.4	16.2	11.4	35.3	90.3	29.2
		총자산	731.9	340.3	260.9	654.9	907.4	202.1
		총부채	1,760.8	1,319.2	1,184.6	1,852.7	1,958.8	641.9
		순자산	-628.9	-519.9	-439.7	-837.9	-677.8	-274.9
일반	가구(수)	5,233	336	236	100	4,897	263	4,634
	가중치(%)	87.6	3.5	2.4	1.1	84.1	2.3	81.8
	소득	근로소득	1,489.8	219.5	74.5	537.7	1,542.5	91.3
		사업소득	462.0	62.6	21.4	153.8	478.5	40.5
		자산소득	108.2	6.6	1.0	18.9	112.4	5.6
		사적이전	164.0	127.9	92.5	205.6	165.5	206.7
		공적이전	139.4	418.4	454.7	338.6	127.8	76.4
		경상소득	2,363.0	834.7	644.1	1,253.4	2,426.5	420.5
	자산	부동산	12,571.4	2,151.6	1,163.6	4,321.2	13,004.2	1,568.6
		금융	2,082.7	257.3	157.1	477.3	2,158.5	231.3
		기타	508.3	67.6	23.1	165.0	526.5	49.0
		총자산	15,162.4	2,476.5	1,343.9	4,963.5	15,689.3	1,848.8
		총부채	1,717.8	370.4	244.3	647.2	1,773.8	293.3
		순자산	12,890.9	2,106.1	1,099.6	4,316.2	13,338.8	1,555.5
전체	가구(수)	6,313	727	561	166	5,568	457	5,129
	가중치(%)	100.0	7.3	5.5	1.8	92.7	4.0	88.7
	소득	근로소득	1,386.6	228.2	89.8	633.7	1,478.1	108.2
		사업소득	418.5	40.9	16.5	112.5	448.3	37.5
		자산소득	95.2	3.3	0.6	11.1	102.4	3.6
		사적이전	166.1	116.5	91.1	191.2	170.0	223.4
		공적이전	144.9	419.6	455.2	315.3	123.2	65.3
		경상소득	2,211.0	808.4	653.3	1,262.2	2,321.8	438.1
	자산	부동산	11,081.5	1,168.3	627.7	2,750.4	11,864.7	973.4
		금융	1,842.9	150.8	93.0	319.6	1,976.6	155.1
		기타	453.8	40.7	16.6	111.3	486.4	40.8
		총자산	13,378.1	1,359.8	737.4	3,181.3	14,327.7	1,169.3
		총부채	1,723.1	866.4	770.9	1,145.8	1,790.8	437.1
		순자산	11,219.2	733.4	237.5	2,184.3	12,047.8	800.2

주: 1) 자산빈곤의 기준은 각 가구의 6개월 최저생계비임

2) 각 항목은 모두 가구균등화된 값임

3) 수급대상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미만, 수급비대상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상인 경우임

〈표 A20〉 자산·소득빈곤에 따른 소득인정액 산출 항목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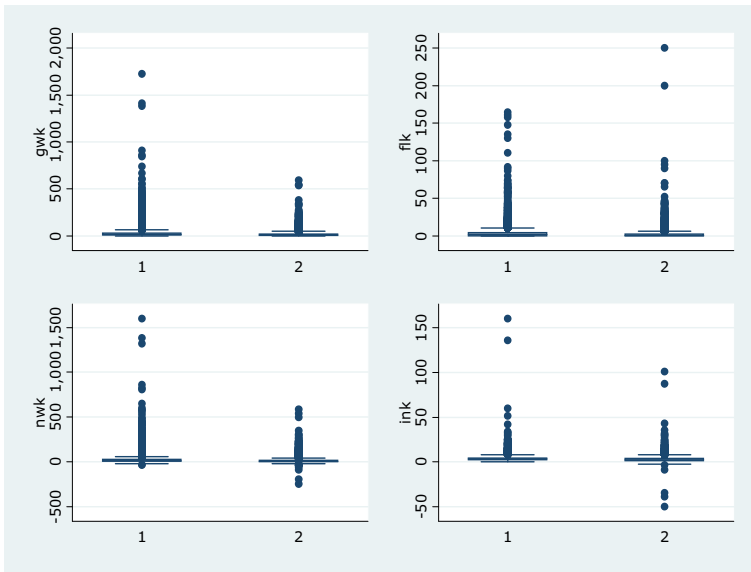
		전체	수급			비수급 전체	수급대상	수급 비대상
			수급전체	수급대상	수급 비대상			
자산빈곤	소득인정액	1,329.7	387.2	212.4	1,080.1	1,752.4	425.6	2,070.1
	소득평가액	975.4	372.4	212.4	1,006.5	1,245.8	425.6	1,442.2
	재산의 소득환산액	354.3	14.8	0	73.5	506.5	0	627.8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액	0	0	0	0	0	0	0
	환산대상 일반재산	0	0	0	0	0	0	0
	일반재산가액	558.4	285.3	217.8	552.5	680.9	154.6	807.0
	(-)공제되는 부채액	1,760.2	1,317.2	1,182.1	1,852.6	1,958.8	641.9	2,274.2
	(-)지역별 재산 기초공제	2,432.0	2,514.5	2,627.0	2,068.8	2,395.0	2,633.1	2,338.0
	금융재산의 소득환산액	0	0	0	0	0	0	0
	자동차의 소득환산액	354.3	14.8	0	73.5	506.5	0	627.8
인근	소득인정액	10,594.6	913.3	211.9	2,453.4	10,996.7	391.9	11,301.1
	소득평가액	2,316.7	454.0	206.4	997.8	2,394.0	370.2	2,452.1
	재산의 소득환산액	8,277.8	459.3	5.5	1,455.6	8,602.6	21.6	8,848.9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액	4,708.3	383.9	4.5	1,217.1	4,887.9	16.4	5,027.7
	환산대상 일반재산	9,409.1	767.2	8.9	2,432.4	9,768.0	32.8	10,047.4
	일반재산가액	12,884.6	2,216.3	1,186.1	4,478.3	13,327.8	1,615.2	13,664.0
	(-)공제되는 부채액	1,717.5	370.4	244.3	647.2	1,773.5	293.2	1,816.0
	(-)지역별 재산 기초공제	2,154.9	2,538.2	2,713.9	2,152.2	2,138.9	2,708.4	2,122.6
	금융재산의 소득환산액	1,249.0	49.0	1.0	154.3	1,298.8	5.3	1,336.0
	자동차의 소득환산액	2,320.5	26.3	0	84.1	2,415.8	0	2,485.2
전체	소득인정액	9,449.0	638.3	212.2	1,885.3	10,145.3	405.8	10,584.2
	소득평가액	2,150.8	411.4	209.8	1,001.4	2,288.3	393.1	2,373.7
	재산의 소득환산액	7,298.1	226.9	2.4	883.9	7,856.9	12.7	8,210.4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액	4,126.1	183.2	2.0	713.7	4,437.7	9.6	4,637.2
	환산대상 일반재산	8,245.7	366.2	3.9	1,426.3	8,868.3	19.2	9,267.1
	일반재산가액	11,360.6	1,206.9	643.9	2,854.5	12,162.9	1,012.5	12,665.4
	(-)공제되는 부채액	1,722.8	865.3	769.5	1,145.8	1,790.6	437.1	1,851.6
	(-)지역별 재산 기초공제	2,189.2	2,525.8	2,665.3	2,117.7	2,162.5	2,677.3	2,139.4
	금융재산의 소득환산액	1,094.6	23.4	0.4	90.5	1,179.2	3.1	1,232.2
	자동차의 소득환산액	2,077.4	20.3	0	79.7	2,239.9	0	2,340.9

- 주: 1) 복지패널 내에서 계산할 수 있는 항목으로 소득인정액의 구성항목이 되는 값으로 연할계산하였
으며, 반영하지 못하는 항목의 차이로 인해 실제와는 다를 수 있음
2) 실제 소득인정액으로 빈곤층을 구분할 때에는 가구원수당 최저생계비 기준이 있어서 조정해줄 필
요가 없었으나, 가구원수로 인한 통계량 차이를 줄이기 위해 균등화함
3) <표 26>의 각주 참조

〈표 A21〉 기초통계량의 비교 (가계자산조사, 복지패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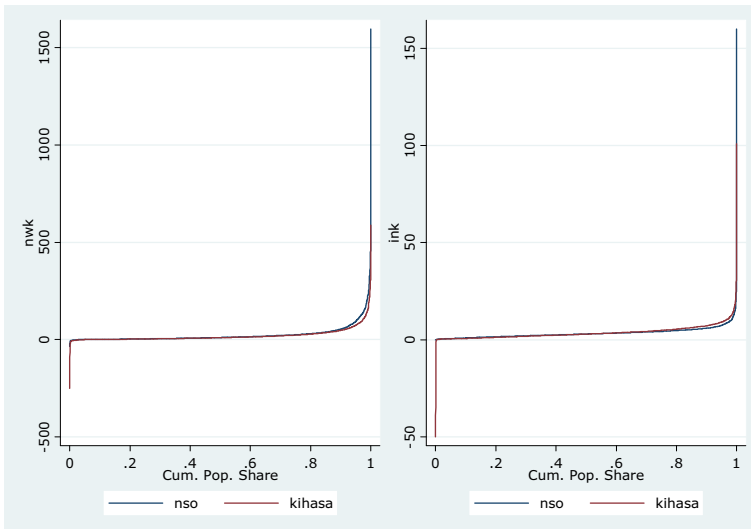
Gross Wealth	NSO	KIHASA	Net Wealth	NSO	KIHASA
No. of Obs.	8,275	6,580	% with X<0	3.9	6.0
% with X=0	0.3	1.6	% with X=0	0.1	0.9
% with X>0	99.7	98.4	% with X>0	96.0	93.1
Smallest	0	0	Smallest	-34,865	-250,000
Largest	1,726,080	593,330	Largest	1,596,080	586,630
Mean	28,112	22,712	Mean	24,614	19,645
Mean (with X>0)	28,182	23,082	Mean (with X>0)	25,253	21,440
			Mean (with X<0)	-2,290	-5,081
Std. dev.	51,975	35,484	Std. dev.	47,673	33,742
Skewness	7.684	5.376	Skewness	80,445	5.255
Kurtosis	123.494	54.215	Kurtosis	135.631	58.254
Debt	NSO	KIHASA	Income	NSO	KIHASA
			% with X<0		0.3
% with X=0	16.6	39.2	% with X=0	0	0.1
% with X>0	83.4	60.8	% with X>0	100.0	99.6
Smallest	0	0	Smallest	6	-50,000
Largest	164,794	250	Largest	160,000	100,900
Mean	3,948	3,071	Mean	3,421	3,661
Mean (with X>0)	4,731	5,048	Mean (with X>0)	3,421	3,707
Std. dev.	8,114	7537	Std. dev.	3,129	3,863
Skewness	7.802	13.237	Skewness	18.040	5,818
Kurtosis	109.908	58.254	Kurtosis	780.023	149.410

[그림 A1] box plot (순자산 및 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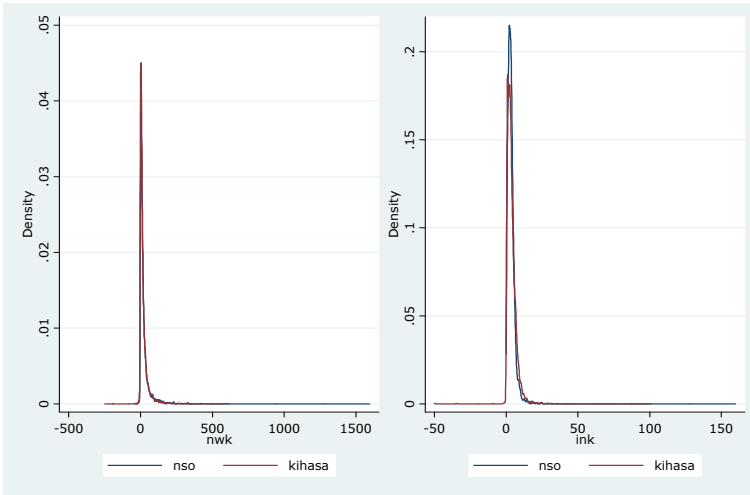


주: 1 = nso, 2 = kihasa. gw = 총자산, fl = 부채, nw = 순자산, in = 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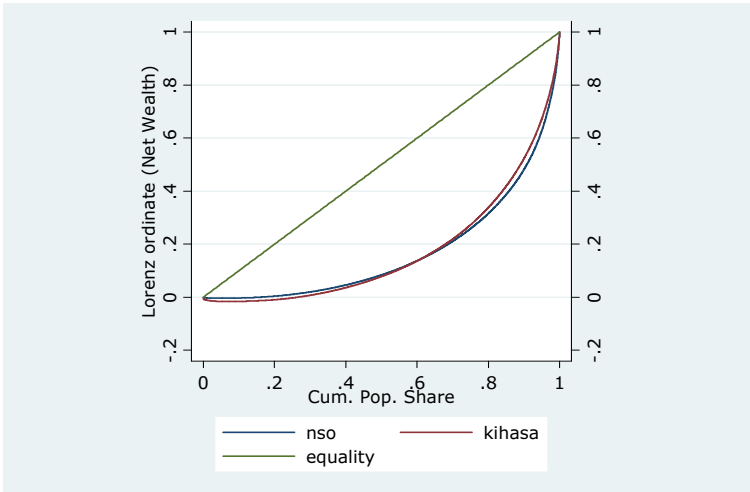
[그림 A2] Pen's parade (순자산 및 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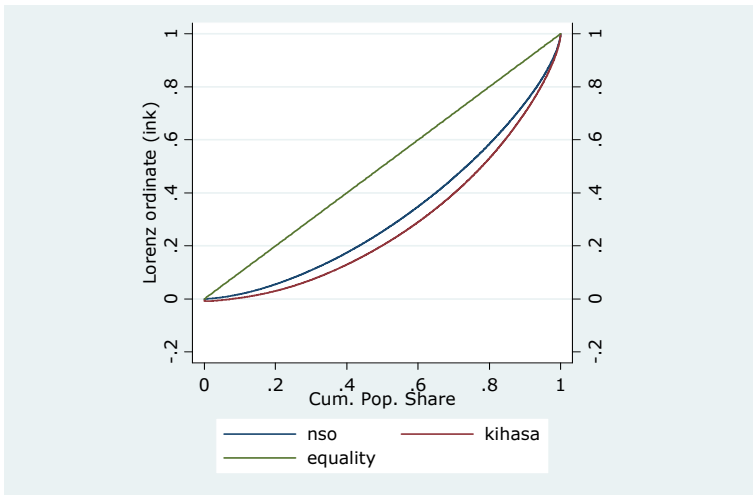
[그림 A3] adaptive kernel density (순자산 및 총소득)



[그림 A4] Lorenz 곡선 (순자산)



[그림 A5] Lorenz 곡선(총소득)





(ㄱ)	수급 기준..... 11, 44, 49
가계부채 포트폴리오..... 22	기초생활보장 수급 기준
가계자산조사..... 100	소득인정액..... 11, 23, 44
경상소득..... 19, 21, 48, 65	소득평가액..... 50
경제적 후생수준..... 12	소득환산액..... 50
경제활동상태	기타자산..... 20
고용주..... 33	
비경제활동인구..... 33	(ㄴ)
상용직..... 33	노동패널..... 14, 15
실업자..... 33	
일용직..... 33	(ㄷ)
임시직..... 33	대우패널..... 14
자영업자..... 33	
국민노후보장패널..... 15	(ㄹ)
균등화..... 67, 68	복지패널..... 19
근로소득..... 20, 21	부동산자산..... 14, 15, 19
금융자산..... 13, 14, 20, 65, 66	부업소득..... 21
기초생활보장..... 78	부채..... 19, 20, 48, 49
부양의무자..... 44	분해성..... 54
소득인정액..... 48	비모수 확률밀도 추정..... 44
소득평가액..... 48	빈곤..... 54

빈곤율	26, 27, 29, 30, 32	역모기지	77
상대빈곤율	23	위험기피적 성향	14
절대빈곤율	23	이전소득	21
(스)		이전원칙	53
사업소득	20, 21	익명성	53
상관계수	15	인구동차성	53
상속자산	13	일반화된 엔트로피 지수	54
생애주기	22	(즈)	
소득동차성	53	자산	11, 12
소득불평등도	15, 54	자산구성 특징	14
상대적 소득불평등도	15	자산보유 양극화	14
절대적 소득불평등도	15	자산분포 불평등	12, 13, 15
소득불평등도 공리	53	자산분포의 정형화된 사실	13
소득빈곤 계층별 점유율	24	자산빈곤	13
소득상대빈곤	23, 37	가구원수별	32
소득절대빈곤	23, 37, 39	가구주 교육수준별	27
소비평활화	12	가구주 연령별	26
순자산	11, 19, 48, 65	가구주 직종별	35
순자산 불평등 요인 분해		결정요인	15
교육수준별	61, 62	경제활동상태별	33
저소득층	54	계층별 점유율	25
지역권별	56, 60	지역권별	30
지역별	55, 56, 59	지역별	29
실업보험저축계좌 제도	78	자산상대빈곤	24
(ㅇ)		자산절대빈곤	24, 44
아동발달계좌	76, 77	자산점유율	12, 13, 14
		재산소득	21

절대 잔차	65	조건부 분위 함수	65
중위회귀분석	65	box plot	101
지니(Gini) 계수	12, 13, 14, 15		
(츠)		(K)	
차상위	23, 39	kernel density	44
차차상위	23, 39	경상소득	46
총자산	19, 48, 49	순자산	46
최소자승법	65	지역별 순자산	58
최저생계비	23, 37, 38, 44	총자산	45
(ㅎ)		(L)	
향상소득가설	22	Lorenz curve	102, 103
후생	54		
		(M)	
(A)		missing value	20
adaptive kernel density	102		
		(P)	
(B)		Pen's parade	101

간행물회원제 안내

▶ 회원에 대한 특전

-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판매용 보고서는 물론 「보건복지포럼」, 「보건사회연구」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며 일반 서점에서 구입할 수 없는 비매용 간행물은 실비로 제공합니다.
- 가입기간 중 회비가 인상되는 경우라도 추가 부담이 없습니다.

▶ 회비

- 전체간행물회원 : 120,000원
- 보건분야 간행물회원 : 75,000원
- 사회분야 간행물회원 : 75,000원

▶ 가입방법

- 홈페이지 - 발간자료 - 간행물회원등록을 통해 가입
- 유선 및 이메일을 통해 가입

▶ 회비납부

- 신용카드 결제
- 온라인 입금 : 우리은행(019-219956-01-014) 예금주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문의처

- (122-705)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68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지식관리센터
간행물 담당자 (Tel: 02-380-8234)

도서판매처

- | | |
|---|---|
| ■ 한국경제서적(총판) 737-7498 | ■ 교보문고(광화문점) 1544-1900 |
| ■ 영풍문고(종로점) 399-5600 | ■ 서울문고(종로점) 2198-2307 |
| ■ Yes24 http://www.yes24.com | ■ 알라딘 http://www.aladdin.co.kr |

시간 안내

보고서 번호	서명	저자	가격
연구 2009-01	의료서비스 질 및 효율성 증대를 위한 통합적 의료전달 시스템 구축 방안	신호성	7,000
연구 2009-02	고가의료장비의 적정공급과 효율적 활용방안	오영호	미정
연구 2009-03	신의료기술의 패턴 변화에 따른 의사결정체제의 발전방향: 의약품 허가제도와 약가제도를 중심으로	박실비아	6,000
연구 2009-04	생애의료비 추정을 통한 국민의료비 분석(1)	정영호	미정
연구 2009-05	미 중측 의료수준과 정책방안에 대한 연구	허순임	미정
연구 2009-06	식품안전관리 선진화를 위한 취약점 중점 관리 방안	정기혜	7,000
연구 2009-07	부문간 협력을 통한 비만의 예방관리체계의 구축 방안	김혜련	8,000
연구 2009-08	국가건강검진사업의 성과제고를 위한 수요자 중심의 효율적 관리 체계 구축방안	최은진	미정
연구 2009-09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보험 확대적용 방안 -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	윤석명	미정
연구 2009-10	글로벌 금융위기상황하의 국민연금기금의 운용방안	원종욱	8,000
연구 2009-11	건강보험 내실화를 위한 재정효율화 방안	신현웅	미정
연구 2009-12	A study for improving the efficiency of health security system the division of roles between public and private health insurance	홍석표	미정
연구 2009-13	사회수당제도 도입타당성에 대한 연구	노대명	미정
연구 2009-14	저소득층 지원제도의 유형 및 특성 연구	여유진	미정
연구 2009-15	저소득층 금융지원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김태완	미정
연구 2009-16	한국의 사회위기 지표개발과 위기수준 측정 연구	김승권	미정
연구 2009-17	아동·청소년복지 수요에 기반한 공급체계 재편방안 연구 II: 지역유형별 사례를 중심으로	김미숙	미정
연구 2009-18	한국가족의 위기 변화와 사회적 대응방안	김유경	미정
연구 2009-19	장애인 소득보장과 고용정책 연계 동향 및 정책과제	윤상용	8,000
연구 2009-20	사회자본과 민간 복지자원 수준의 국가간 비교연구: 자원봉사활동과 기부를 중심으로	박세경	미정
연구 2009-21	사회복지부문별 정보화현황 및 정책적용방안	정영철	미정
연구 2009-22	노인건강정책의 현황과 향후 추진방안: 일상생활기능자립증진체계 구축을 중심으로	선우덕	7,000
연구 2009-23	노인의 생산활동 실태 및 경제적 가치 평가	정경희	미정
연구 2009-24	보건복지가족부 웹사이트 통합·연계 및 발전방안 연구	송태민	7,000
연구 2009-25	한국의 보건복지 동향 2009	장영식	미정
연구 2009-26-1	2009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모니터링 및 평가: 법제정 10년의 제도운영 점검	이태진	미정
연구 2009-26-2	가난한 사람들의 일과 삶: 심리사회적 접근을 중심으로	이현주	6,000
연구 2009-26-3	근로빈곤층 지원정책 개편방안 연구	노대명	미정
연구 2009-26-4	사회복지지출의 소득재분배 효과분석	남상호	5,000
연구 2009-26-5	저소득층의 자산실태분석	남상호	5,000
연구 2009-26-6	2009년 빈곤통계연보	김태완	8,000
연구 2009-27-1	유럽의 능동적 복지정책 비교연구	홍석표	미정
연구 2009-28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	정영호	미정
연구 2009-29	보건의료자원배분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및 운영 - 2009년 보건의료자원실태조사 결과보고서 -	오영호	6,000

보고서 번호	서 명	저자	가격
연구 2009-30-1	2009년 건강영향평가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제1권 (총괄)	강은정	미정
연구 2009-30-2	2009년 건강영향평가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제2권 -건강영향평가 시범사업	강은정	미정
연구 2009-31-1	2009 사회예산 분석	최성은	미정
연구 2009-31-2	보건복지제정의 정책과제	유근춘	미정
연구 2009-31-3	정부의 사회복지제정 DB구축에 관한 연구(3차년도): 중앙정부 세출예산을 중심으로	고경환	미정
연구 2009-31-4	보육지원정책의 효과성 분석	최성은	미정
연구 2009-31-5	자활사업의 평가 및 과제	고경환	미정
연구 2009-32-1	2009년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	손창균	미정
연구 2009-32-2	2008년 한국복지패널 심층분석 보고서	여유진	미정
연구 2009-33	2009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김승권	미정
연구 2009-34-1	다문화가족 증가가 인구의 양·작·질적 수준에 미치는 영향	이삼식	5,000
연구 2009-34-2	육아지원 인프라의 양·작·질적 수준 적정화 방안	신윤정	미정
연구 2009-34-3	장기요양등급유자 관리를 위한 노인복지관과 보건소의 보건복지 서비스 연계 방안	오영희	미정
연구 2009-34-4	노인자살의 사회경제적 배경 및 정책적 대응방안 모색	이소정	미정
연구 2009-34-5	고령친화용품 소비실태 및 만족도에 관한 연구	김수봉	미정
연구 2009-35	보건복지통계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이연희	미정
연구 2009-36	인터넷 건강정보 평가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정영철	미정
연구 2008-01	건강수명의 사회계층간 형평성과 정책과제	강은정	6,000
연구 2008-02	여성 흡연과 음주의 요인 및 정책대안	서미정	9,000
연구 2008-03	공공보건조직의 효율성 분석 및 운영 합리화 방안	신호성	7,000
연구 2008-04	건강한 미래세대를 위한 영양 관련 요인 분석과 정책과제: 모유수유 및 아동·청소년 영양문제를 중심으로	김혜련	7,000
연구 2008-05	남북한간 보건의료 교류·협력의 효율적 수행체계 구축방안 연구	이상영	6,000
연구 2008-06	저소득층 생계비 지원정책의 개선방안 연구	강신옥	7,000
연구 2008-07	건강보험 지불제도와 의료공급자의 진료행태: 의료공급자의 유인 수요와의 연관성 파악	허순임	7,000
연구 2008-08	공적연금의 지속 가능성에 관한 연구: 재정적·정치적 지속 가능성 중심으로	윤석명	7,000
연구 2008-09	국민연금 기금운용 성과 평가	원종욱	7,000
연구 2008-10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적 배제계층 지원방안 연구: 사회적 배제의 역동성 및 다차원성 분석을 중심으로	김연나	9,000
연구 2008-11	사회재정지출의 효율성과 형평성 분석	최성은	6,000
연구 2008-12	한국복지모형에 대한 연구: 그 보편성과 특수성	노대명	6,000
연구 2008-13	한국인의 행복결정요인과 행복지수에 관한 연구	김승권	10,000
연구 2008-14	다문화시대를 대비한 복지정책방안 연구 -다문화가족을 중심으로 -	김유경	15,000
연구 2008-15	아동·청소년복지 수요 추계 연구 I	김미숙	8,000
연구 2008-16	지역복지 활성화를 위한 사회자본형성의 실태와 과제	박세경	6,000
연구 2008-17	노년기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다차원적 구조분석	이소정	8,000
연구 2008-18-1	2008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모니터링 및 평가 연구-조건부 수 급자를 중심으로	이태진	7,000
연구 2008-18-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모니터링 실효성 제고를 위한 기초연구 - 법, 조직, 정보 인프라를 중심으로	이현주	6,000
연구 2008-18-3	2008 빈곤통계연보	김태완	8,000
연구 2008-18-4	의료급여 사례관리 효과분석 II	신영석	6,000

보고서 번호	서 명	저자	가격
연구 2008-18-5	의료급여 선택병의원제도 모니터링에 관한 연구	신현웅	5,000
연구 2008-18-6	서구 근로빈곤문제의 현황과 쟁점	노대명	6,000
연구 2008-19-1	국민연금기금의 의결권행사 기준개선을 위한 해외사례 연구	원종욱	6,000
연구 2008-19-2	한국의 복지 GNP	홍석표	5,000
연구 2008-20-1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추진실태와 효율화 방안 연구	오영희	10,000
연구 2008-20-2	저출산·고령사회관련 주요 현안 및 대응방안 연구	오영희	9,000
연구 2008-20-3	저출산 대응 정책의 효과성 평가에 관한 연구	이상식	7,000
연구 2008-20-4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한 여성인적자본의 효율적 활용방안	산윤정	6,000
연구 2008-20-5	노인 장기요양보장체계의 현황과 개선방안	선우덕	9,000
연구 2008-20-6	농촌지역 고령자의 생활기능 지립을 위한 보건복지 자원체계 모형 개발	선우덕	5,000
연구 2008-20-7	노후생활안정을 위한 인적 및 물적 자산 활용방안	김수봉	미정
연구 2008-20-8	국제적 관점에서 본 고령화에 대한 정책적 대응현황과 과제	정경희	6,000
연구 2008-21-1	2008년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	김미곤	15,000
연구 2008-21-2	2007년 한국복지패널 심층분석 보고서	여유진	9,000
연구 2008-22-1	한국의료패널 예비조사 결과 보고서	정영호	9,000
연구 2008-22-2	2008년 한국의료패널 조사 진행 보고서	정영호	8,000
연구 2008-23-1-1	사회재정사업의 평가	유근춘	미정
연구 2008-23-1-2	사회재정사업의 평가 -가족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운영평가: 상담서비스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고경환	6,000
연구 2008-23-2	사회재정평가지침-사례와 분류	유근춘	미정
연구 2008-23-3	조세 및 사회보장 부담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남상호	5,000
연구 2008-23-4	의료급여 재정모형과 재정지출 전망	최성은	6,000
연구 2008-23-5	복지제도의 발전방향 모색-가족부문 투자	유근춘	미정
연구 2008-23-6	정부의 복지재정지출 DB 구축 방안에 관한 연구(2차년도)	고경환	5,000
연구 2008-23-7	2008 사회예산 분석과 정책과제	최성은	7,000
연구 2008-24-1	국립소록도병원의 만성병 관리체계에 대한 건강영향평가	강은정	5,000
연구 2008-24-2	드림스타트의 건강영향평가	강은정	7,000
연구 2008-24-3	KTX의 건강영향평가 -의료이용을 중심으로	김진현	6,000
연구 2008-24-4	기후변화에 따른 전염병 감시체계 개선방안	신호성	6,000
연구 2008-25	보건의료자원배분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및 운영(1년차)	오영호	5,000
연구 2008-26	인터넷 건강정보 평가시스템 구축 및 운영	송태민	8,000
연구 2008-27-1	능동적 복지의 개념정립과 정책과제	김승권	8,000
연구 2008-27-2	보건복지재정 적정화 및 정책과제	유근춘	미정
연구 2008-27-3	능동적 복지개념에 부합된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체계개편 방안	신영석	6,000
연구 2008-27-4	능동적 복지와 사회복지서비스 실천방안	김승권	7,000
연구 2008-27-5	능동적 복지 구현을 위한 건강투자 전략	최은진	6,000